

---

# 2016년 산업별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분석팀

---

2015년 12월 22일



# 글로벌 거시경제 이슈 및 한국 경제의 특수성



# 거시경제지표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환경요인	방향	대상업종	산업에 미치는 영향
美 금리 ↑	-	자동차(신흥시장)	외자 유출, 현지 환율 상승, 판매 부진
엔/달러 ↑	-	IT,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일본 업체 가격경쟁력 상승 일본 제품 수입 확대
중국 GDP ↓	-	IT, 자동차, 철강, 비철금속, 조선, 해운, 기계, 석유화학	중국의 내수 수요와 수출 동반 감소
원/달러 ↑	+	IT, 자동차, 기계	가격경쟁력 상승, 원화 환산이익
원자재 ↓	-	철강, 비철금속	자원국 경기 부진, 글로벌 수요 부진 금속 업체 판가 하락으로 연결
유가 ↓	+	정유, 석유화학, 해운	원료 가격 하락으로 마진 확대 연료비 절감, 물동량 증가
	-	정유, 석유화학, 조선, 해운, 건설	재고 손실 발생, 부산물 공급 과잉 플랜트 수주 감소, 운임 하락 압력 증가

# 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산업별 충격 비교

---

# Conten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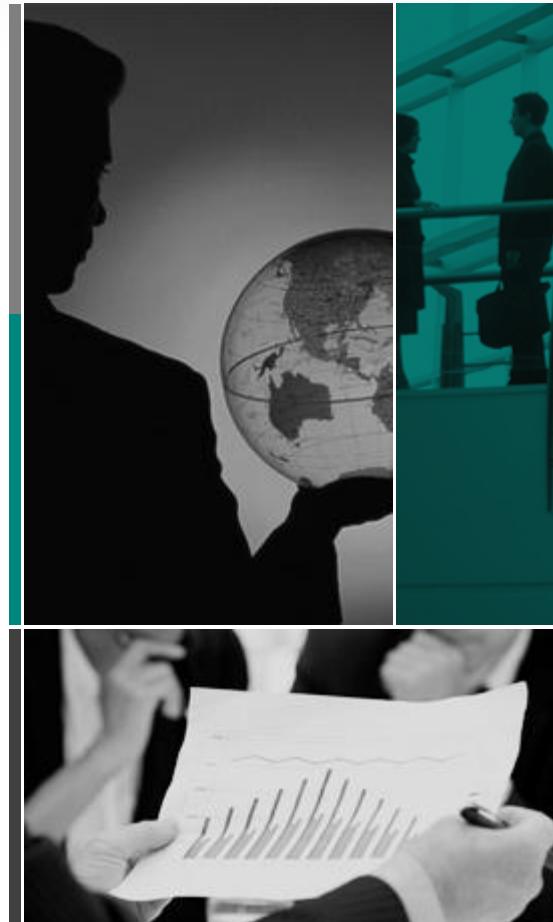
I. 산업별 기상도 및 경기 사이클

II.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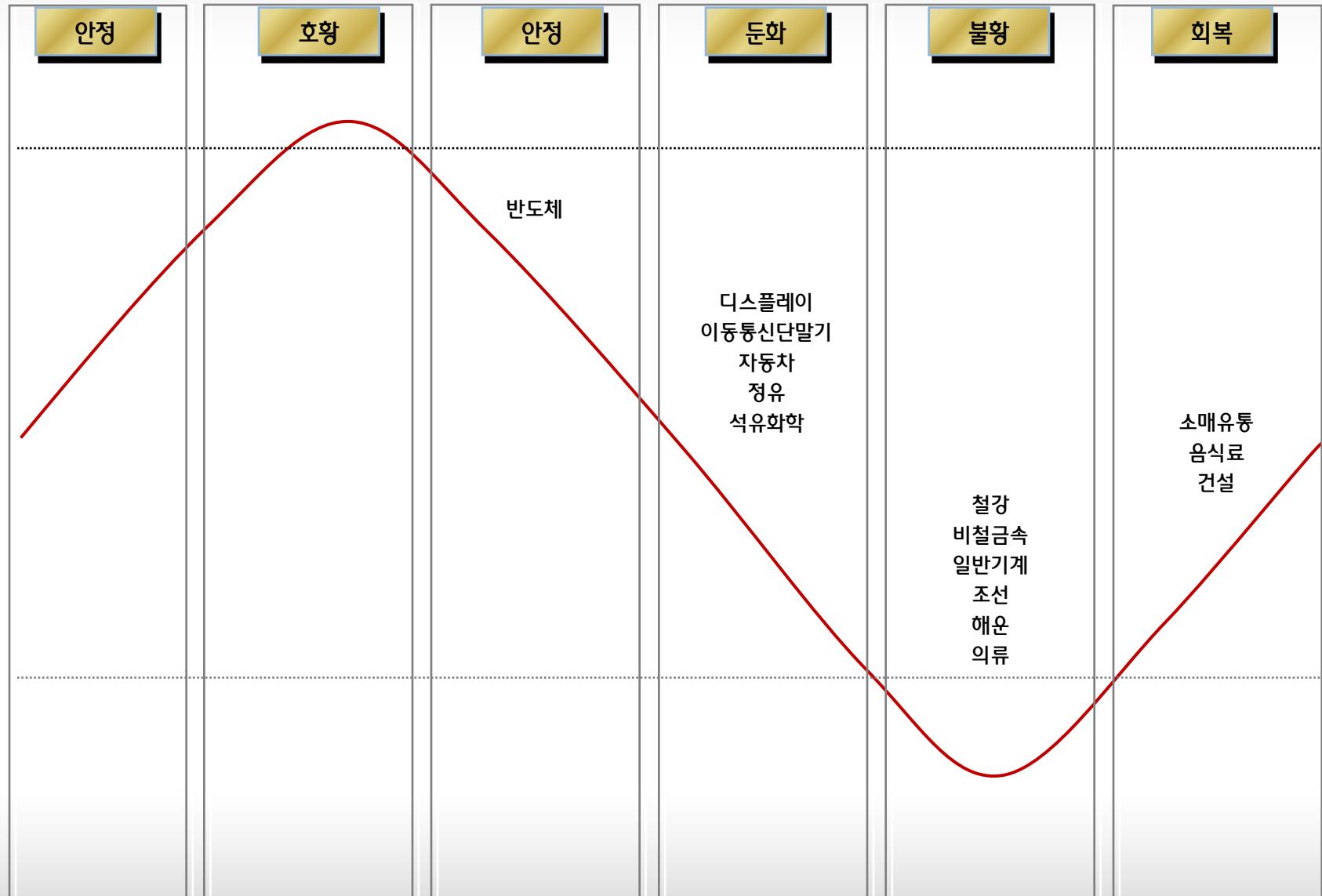
---

# 산업별 기상도 및 경기 사이클

1. 2016년 주요 산업별 경기 사이클
  2. 2016년 주요 산업별 기상도
- 



# 2016년 산업별 경기 사이클



# 2016년 산업별 기상도

산업	생산		내수		수출		수익성	
	2015년 동향	2016년 전망	2015년 동향	2016년 전망	2015년 동향	2016년 전망	2015년 동향	2016년 전망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				
이통단말기								
화학	정유							
	석유 화학							
	섬유	-	-	-	-	-	-	-
철강								
비철금속								
조선			-	-				

호황	안정 성장	다소 회복	정체 상태	다소 부진	불황

# 2016년 산업별 기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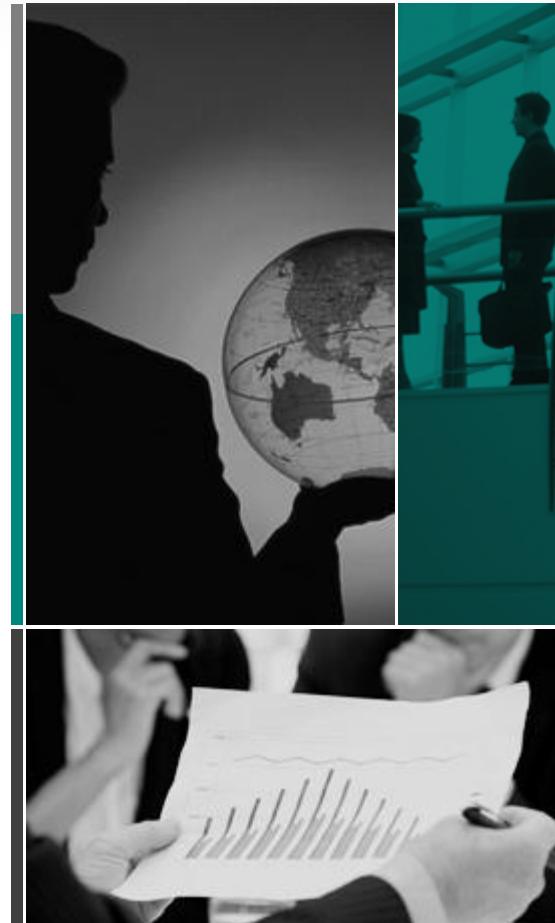
산업	생산		내수		수출		수익성	
	2015년 동향	2016년 전망	2015년 동향	2016년 전망	2015년 동향	2016년 전망	2015년 동향	2016년 전망
일반기계								
자동차								
음식료					-	-		
해상운송	-	-	-	-	-	-		
제약	-	-	-	-	-	-	-	-
소매유통	-	-			-	-		
의류					-	-		
건설								

호황	안정 성장	다소 회복	정체 상태	다소 부진	불황

---

#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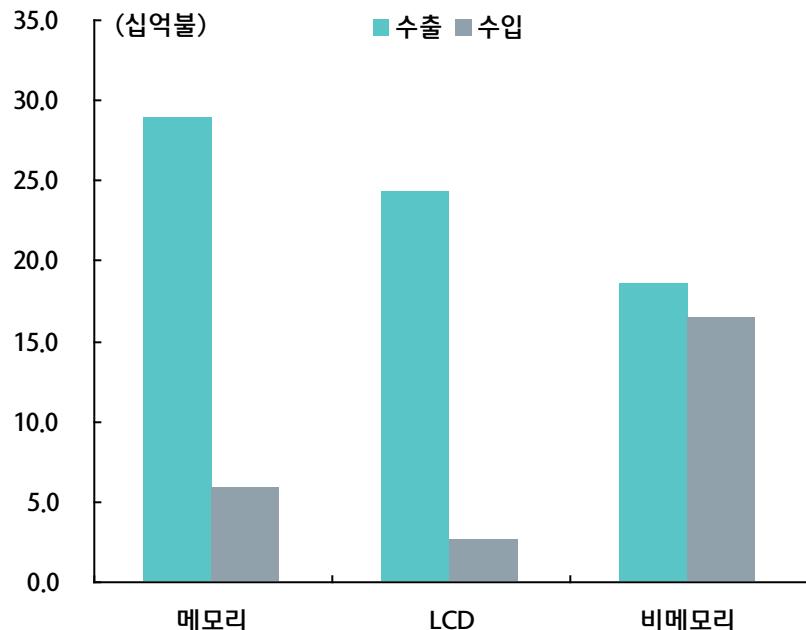
- |           |         |
|-----------|---------|
| 1.반도체     | 9.정유    |
| 2.디스플레이   | 10.석유화학 |
| 3.이동통신단말기 | 11.소매유통 |
| 4.자동차     | 12.해운   |
| 5.조선      | 13.음식료  |
| 6.일반기계    | 14.의류   |
| 7.철강      | 15.건설   |
| 8.비철금속    |         |



# 반도체/LCD: 수출 비중이 높아 원/달러 환율 상승 수혜

-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므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
  -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LCD패널의 수출액은 수입액의 5~9배에 달함
- 다만, 엔/달러 환율 역시 상승하고 있어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정적
  - 엔화 약세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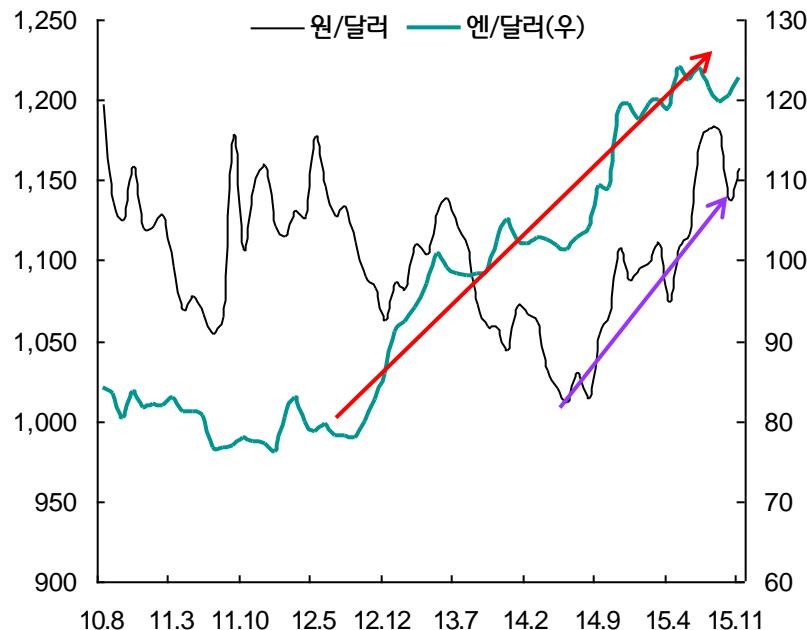
품목별 수출입 규모



- 주 : HSK 기준 (2014)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원화, 엔화의 대 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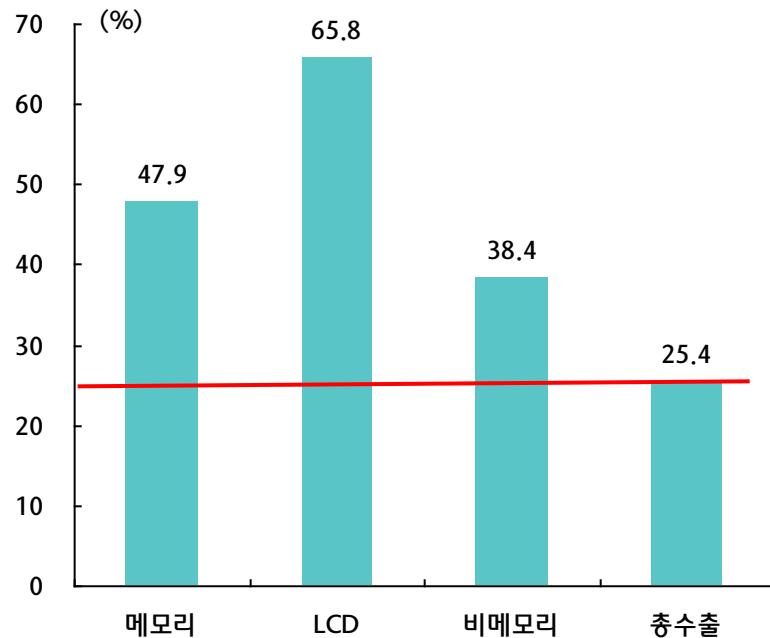


- 자료 : FnGuide

# 반도체/LCD: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저성장 리스크에 노출

- 중국에 PC, TV 등 IT 완제품 생산기지가 많아 반도체, LCD패널 등 중간재 수요가 가장 많음
  - 한국 총수출의 중국 비중은 25.4%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38~65% 정도로 매우 높음
- 중국은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므로 중국의 경기둔화는 IT 부품 수요 부진을 초래
  - 중국의 경기 부진과 IT 부품의 국산화율 상승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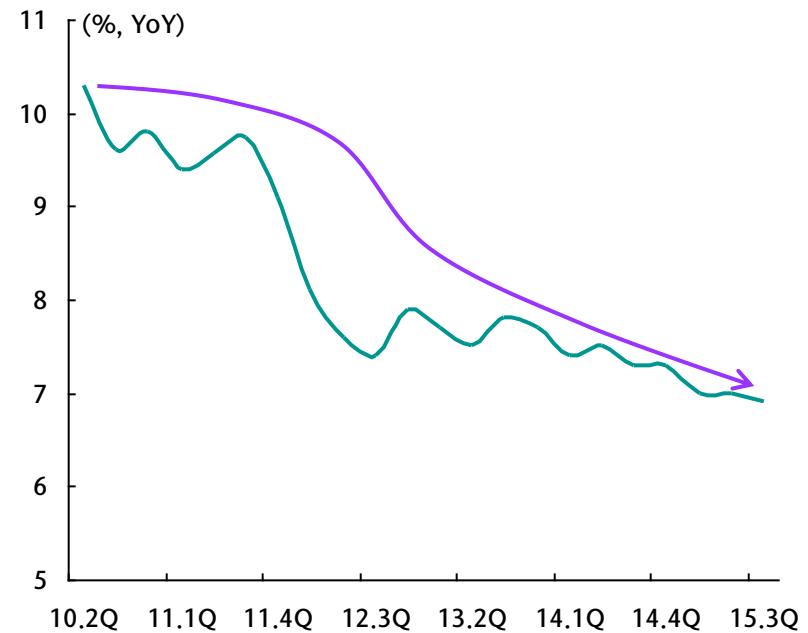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 주 : HSK 기준 (2014)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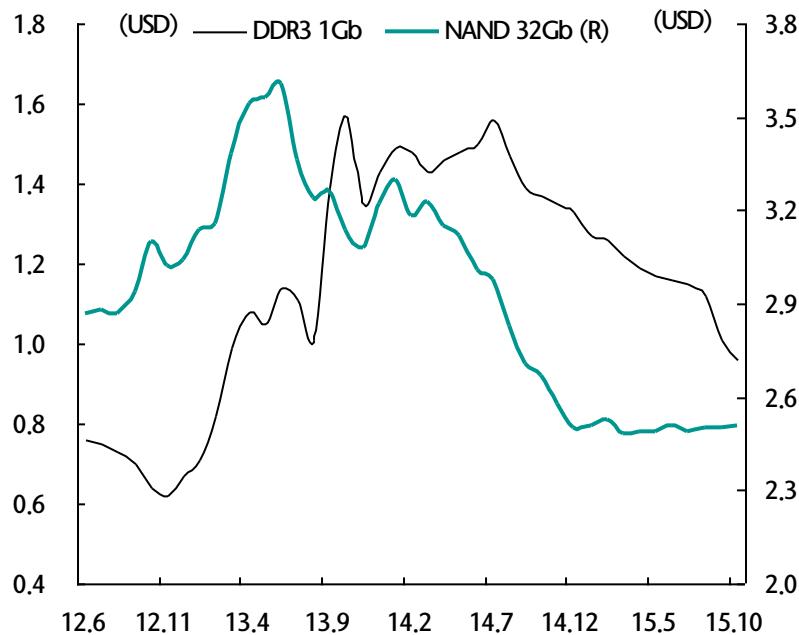


- 자료 : Fnguide

# 반도체: 가격 하락 진정되고 투자 지표 양호한 흐름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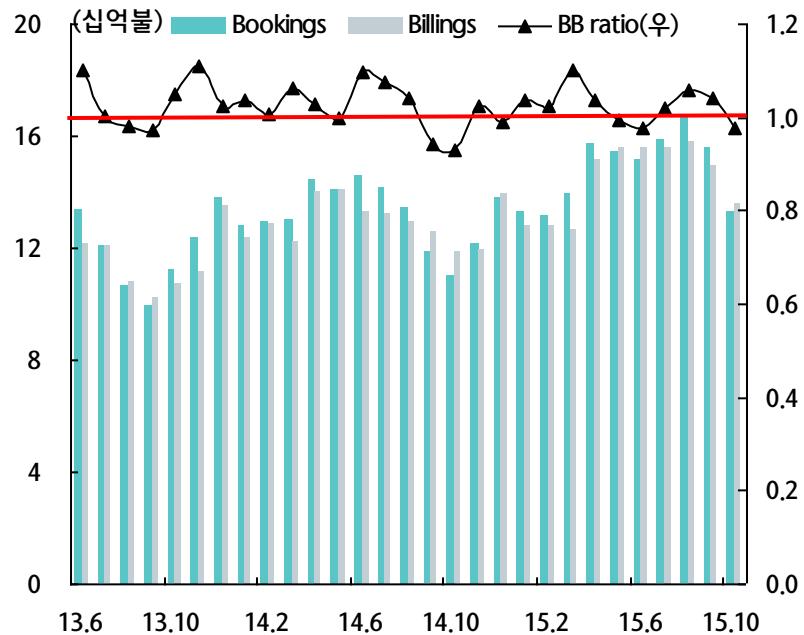
- 최근 DRAM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었고 NAND 가격은 소폭 상승세로 전환해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지난 상반기 DRAM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익률 달성
- 반도체 경기 선행지표인 BB율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은 낮음
  - BB율이 일시적으로 1 미만을 기록하더라도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반도체 가격 동향



- 자료 : Bloomberg

## 북미 반도체 장비 수주/출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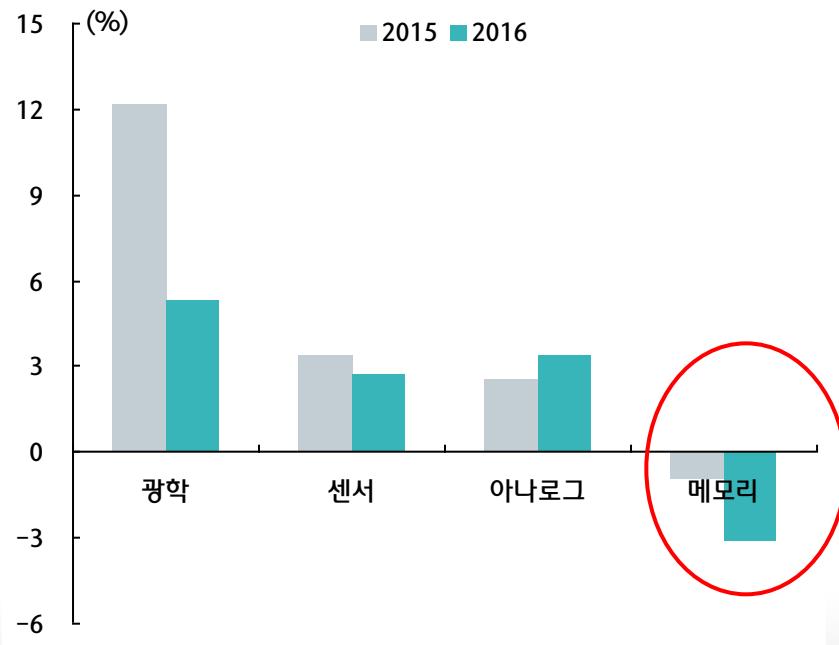


- 자료 : SEMI

# 반도체: 반도체 경기는 정점을 지나 다소 둔화 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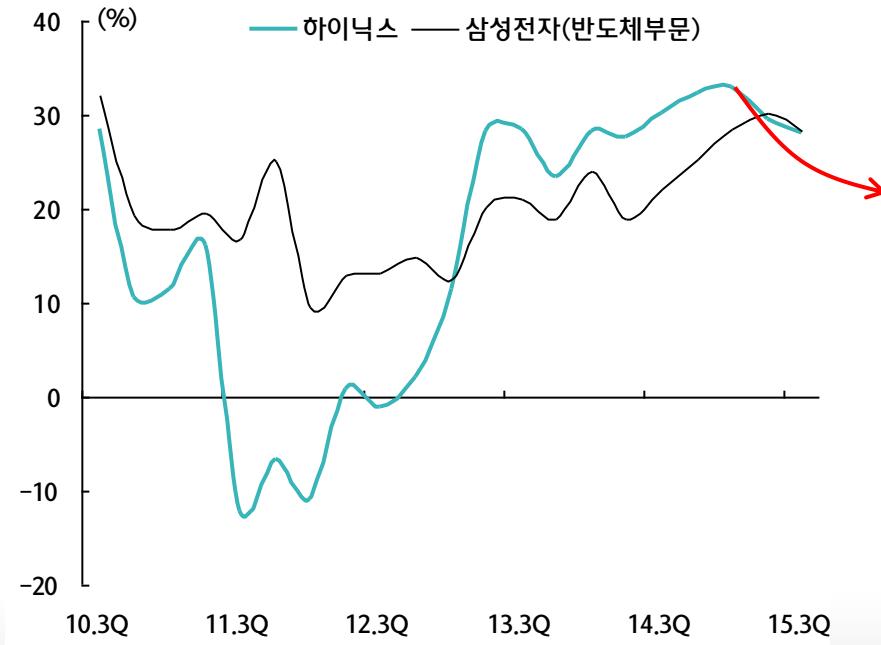
- 광학, 센서, 아나로그 등은 소폭 성장 예상되나 국내 업체들의 주력인 메모리는 마이너스 성장
  - 향후 1~2년간 메모리 수요가 부진해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타 업종 대비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겠지만 지난 2년보다는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전망
  - 최근 30%까지 높아졌던 영업이익률이 20%대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 존재

종류별 반도체 시장성장을 전망



- 자료 : WSTS

반도체 업체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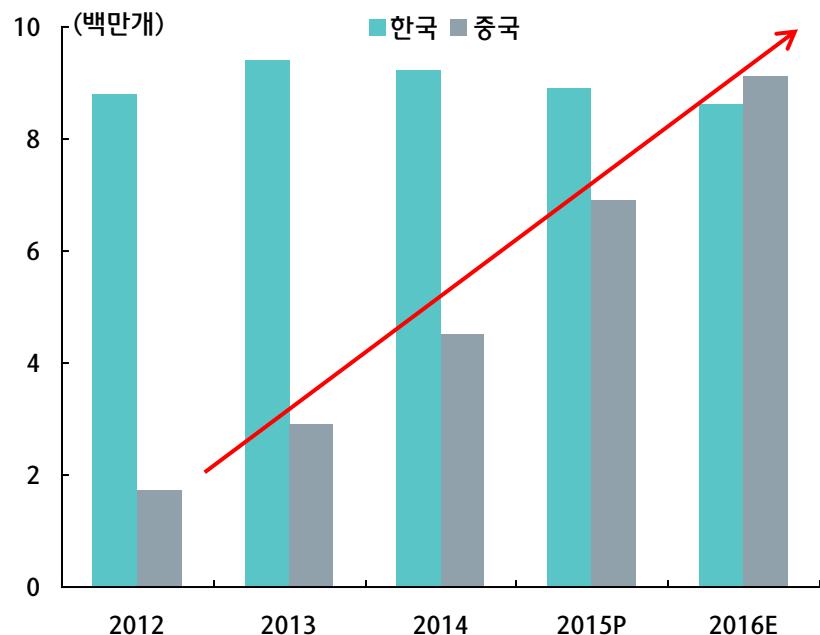


- 자료 : 각 사 자료

# 디스플레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과잉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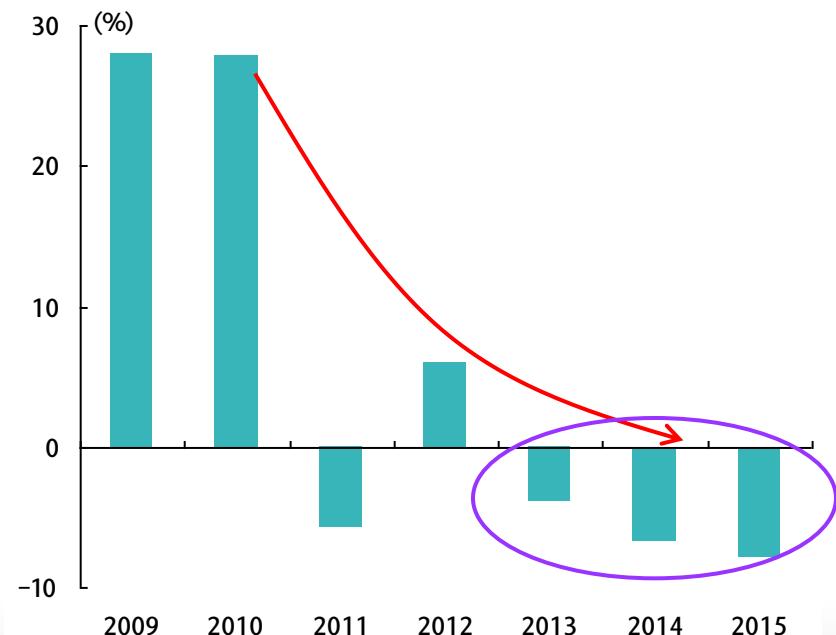
-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적자 상황에서도 증산을 거듭해 공급과잉 심화
  - 국내 업체들도 중국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중국 업체들의 신규 공장 건설 물량이 훨씬 많음
  - 현재 건설 중인 공장들이 차질 없이 완공되면 내년 중 중국의 생산능력이 한국을 앞설 전망
- LCD패널은 수출 비중이 높은데 최근 3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 현지 생산 확대,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8세대 LCD패널 생산능력 전망



- 자료 : IHS

LCD패널 수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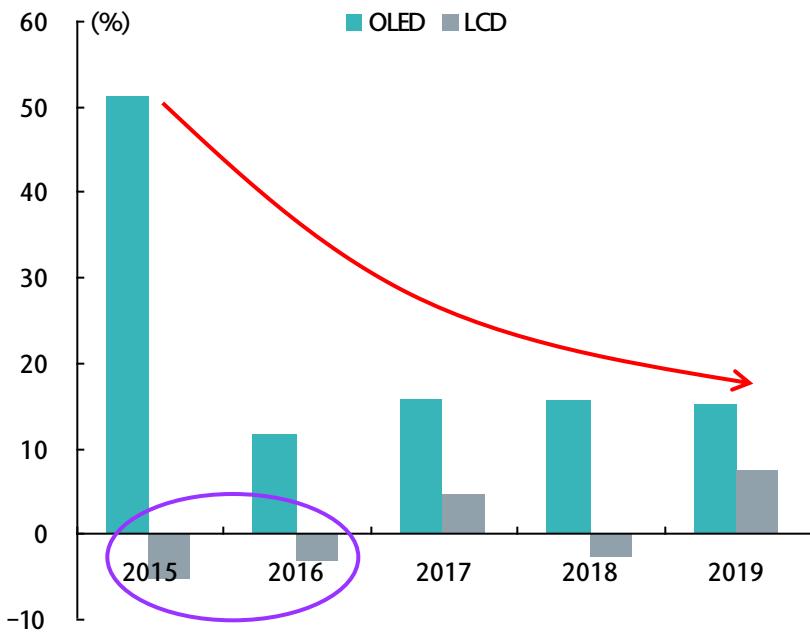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디스플레이: LCD 시장 역성장에 따른 실적 악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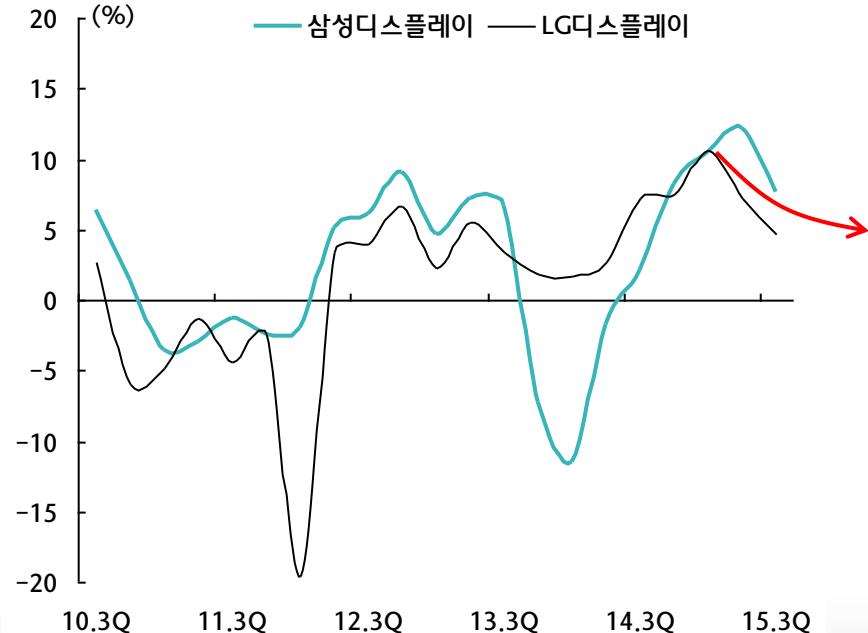
- OLED 시장은 한동안 10% 성장이 가능하나 LCD 시장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2015년 기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함
  - OLED 시장 역시 2015년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
- 태블릿 시장이 둔화되고 TV 시장은 정체 상태이므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익성은 다소 하락
  - 원가경쟁력을 갖춘 국내 업체들의 적자 전환될 가능성은 낮으나 실적 악화는 불가피

디스플레이 시장성장을 전망



- 자료 : IHS

디스플레이 업체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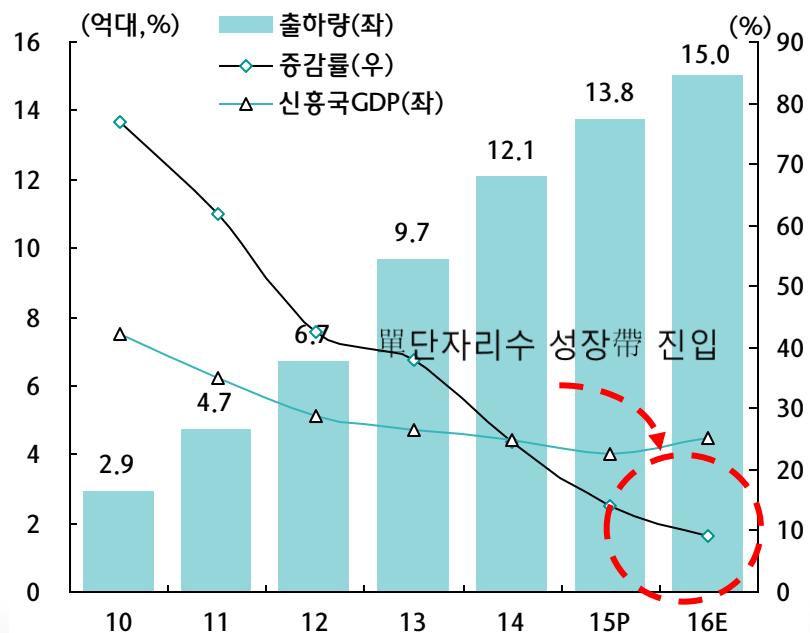
- 자료 : 각 사 자료

# 휴대폰: 신흥국 경기불안과 시장 포화로 본격적 성숙기 진입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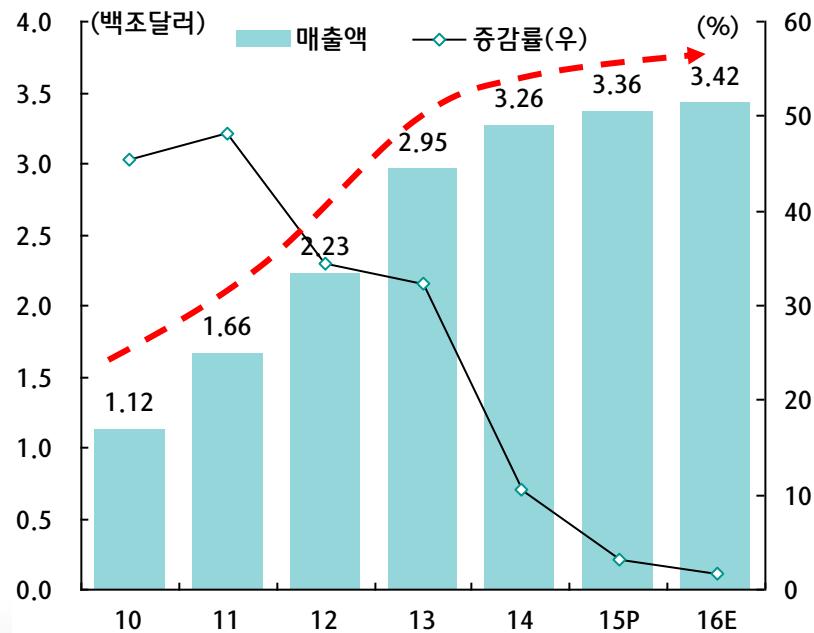
- 신흥국 경기불안과 선진국 시장 포화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수요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둔화
  - 유가 하향 기조, 중국 경제 둔화('14년 GDP YoY 6.4%)여파로 신흥국 중심의 수요 성장세 위축
- 출하량 증가율 둔화와 각국 보조금 축소에 따른 프리미엄폰 시장 위축 등 구조적 성숙단계 진입
  - 휴대폰 출하량의 71%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 성장세 위축 X ASP하락 → 매출액 규모 정체

## 스마트폰의 본격적 성숙기 진입



- 자료 : 가트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스마트폰 매출액 성장세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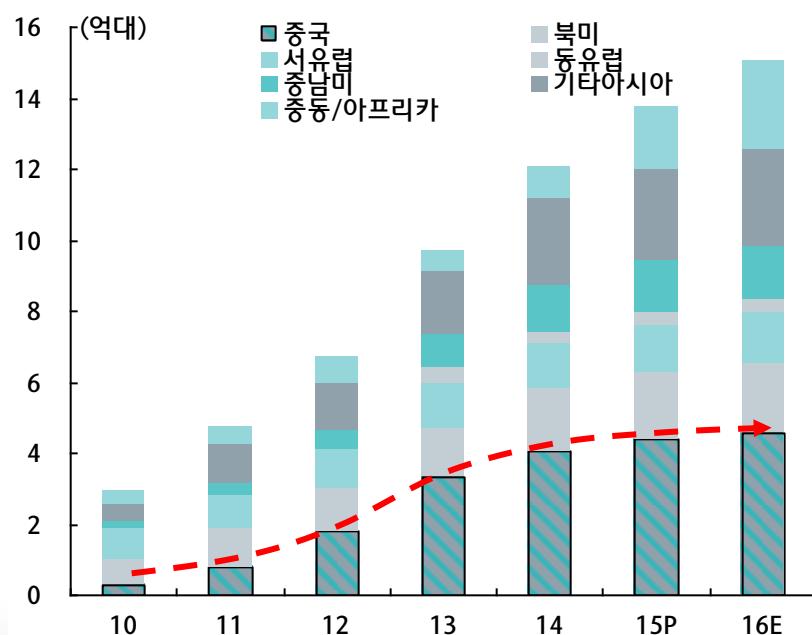
- 자료 : 가트너, IDC,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휴대폰: 중국시장 위축되나 중국업체의 중위권 주도력 확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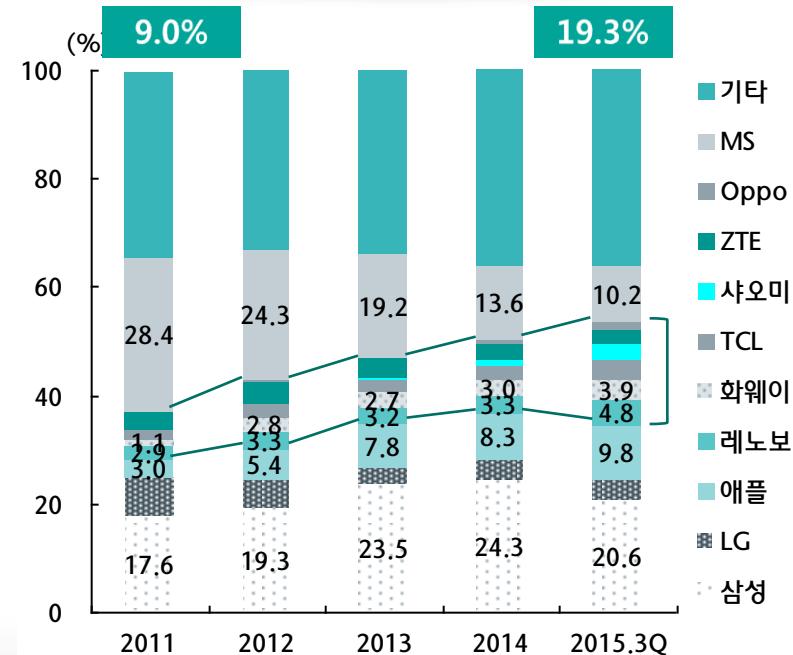
-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세를 견인하던 중국 경제의 둔화와 높은 스마트폰 침투율이 성장폭 제한
  - '14년 중국 스마트폰 침투율이 '14년 70%를 초과했으며 경기둔화와 보조금 축소로 전세계 수요의 36%에 이르던 신규, 교체 수요가 위축
- 중국업체의 글로벌 진출, 위안화 평가 절하, 보급형 위주의 성장세 등으로 중국업체 영향력 확대
  - 삼성 휴대폰 M/S는 2014년을 고점으로 하락 중이며 LG는 중위권 경쟁에서 고전 중

수요를 견인하던 중국시장의 위축



- 자료 : 가트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중국업체의 휴대폰 출하량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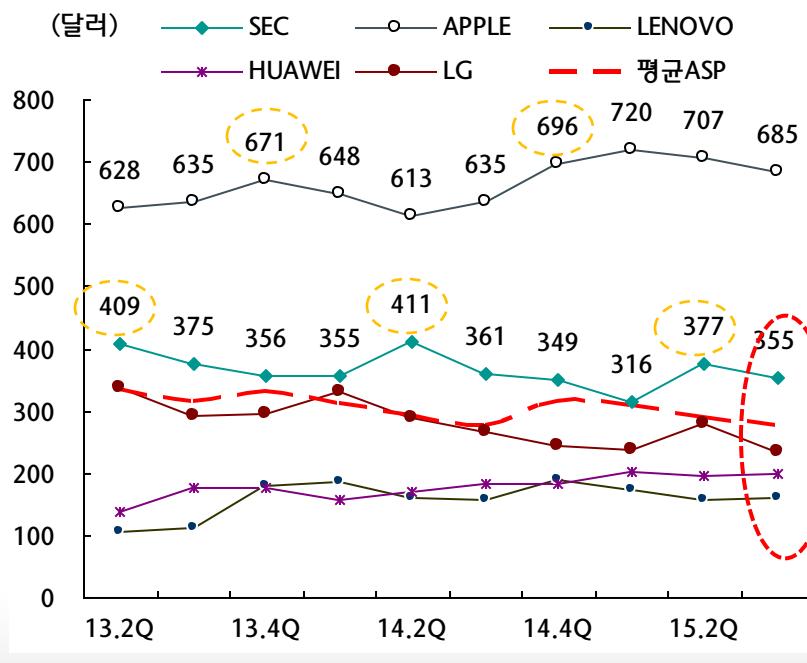
- 주 : 15년은 3Q 까지 누적 출하량 기준

- 자료 : IDC, 블룸버그

# 휴대폰: 가격·점유율 경쟁심화로 완만한 수익성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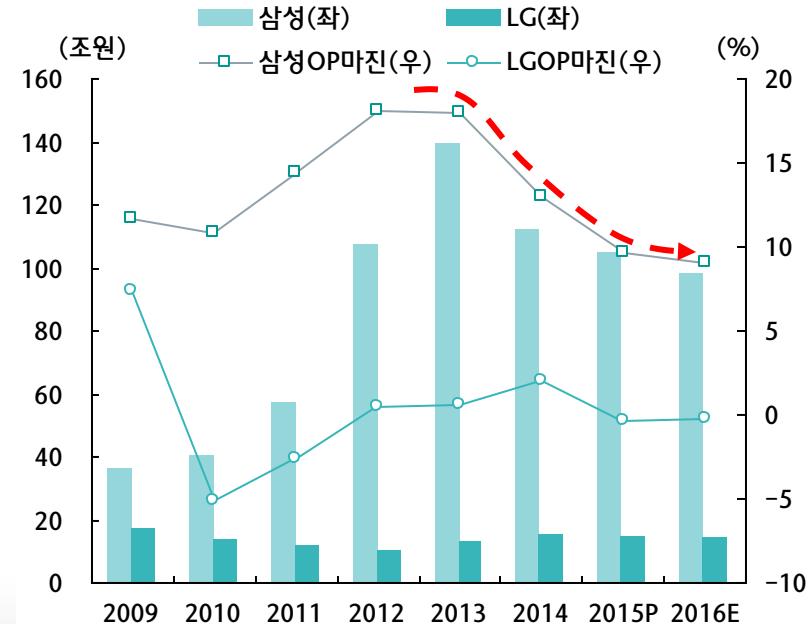
- 애플을 제외하면 스펙 고사양화와 Premium폰 위축으로 중저가 모델 판가 경쟁 지속되며 ASP하락
  -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스마트폰 ASP : 438\$('14) → 423\$('15P) → 413\$('16E)
- 비용구조 개선 노력 중이나 중저가 제품군 로컬업체들과의 가격 및 점유율 경쟁 심화로 수익성 하락
  - 해외생산체제 강화, 비용구조 개선이 예상되나 수익성 하락 추세를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듯

## 스마트폰 평균판매가(ASP) 추이



- 자료 : IDC, 블룸버그

## 국내업체 매출액, 영업이익률 전망



- 주 : 삼성전자, LG전자 IM, MC사업부문

-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Fn-Guid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자동차: 中 경기둔화, 美 금리인상 등이 2016년 주요 리스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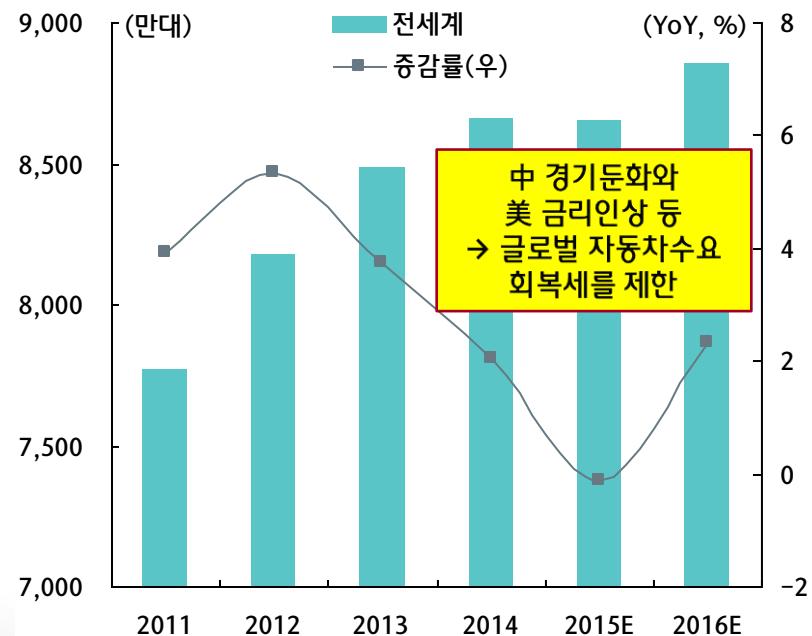
- 중국은 투자효율 저하, 수출부진으로 7%대 성장을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러시아와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역성장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편 美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원화가치 약세는 자동차메이커의 수출에 일조하겠지만, 신흥국 자금 유출에 따른 현지통화가치 절하는 원화환산 매출액 감소와 외화 환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자동차산업의 주요 리스크요인

구분	주요 영향 점검
中 경기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의 소형차종에 대한 취득세를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수요진작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동차 수요 회복을 모색</li> <li>▪ 그러나 세계 자동차 판매의 23%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수요 둔화, 경쟁심화는 현대/기아차의 실적 개선에 부담이 됨</li> </ul>
美 금리인상 (신흥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發 금리인상에 따른 원화가치의 약세를 초래하면서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일조 가능</li> <li>▪ 다만, 신흥국 자금유출에 따른 현지 통화가치 절하는 원화환산 매출액 감소 및 외화 환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li> </ul>
원자재 가격 약세 (신흥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은 원자재가격 약세에 따른 경기둔화, 재정수지 적자 등으로 재정건선성 우려가 높아졌고, 통화가치 하락으로 자동차시장이 크게 위축</li> <li>▪ 원유/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75%,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도 유가하락과 경제제재로 역성장하면서 자동차 수요가 위축</li> </ul>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글로벌 자동차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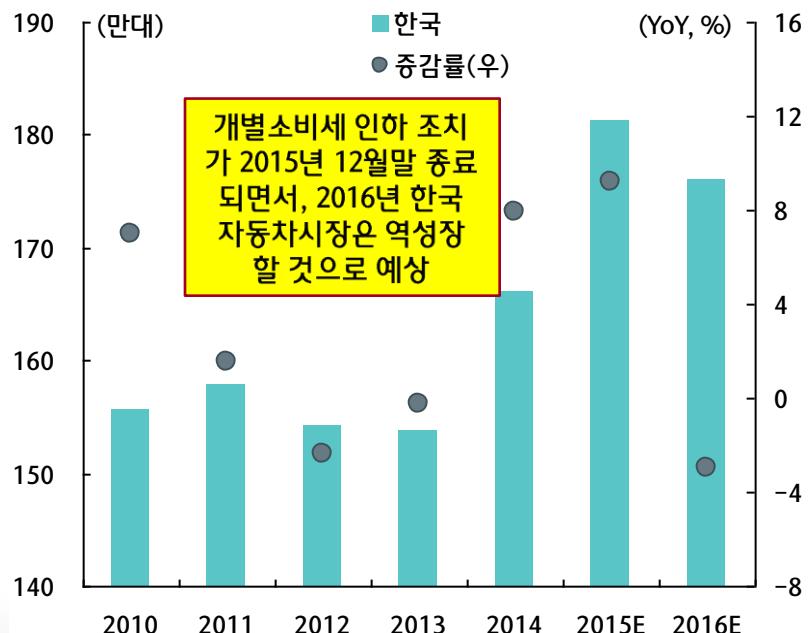
- 자료 : WardsAuto,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자동차: 수요부진, 경쟁심화로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은 기대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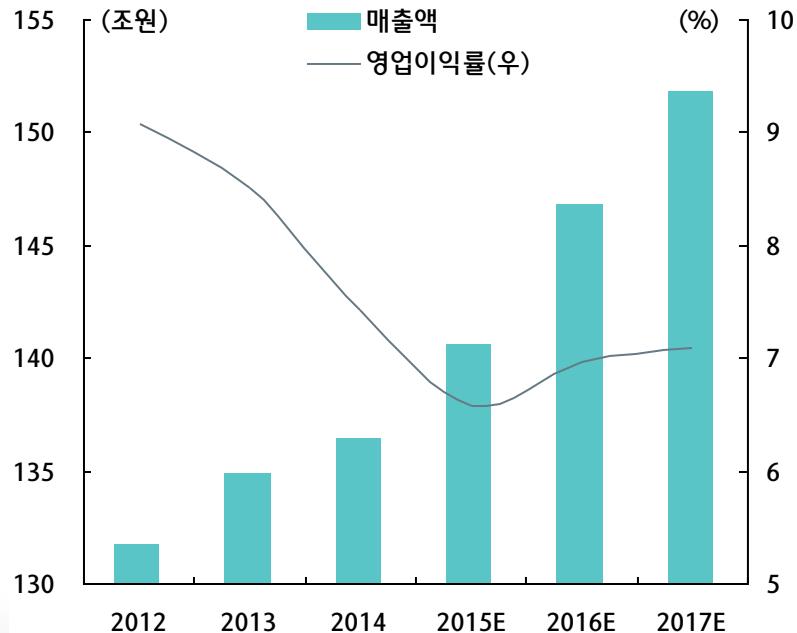
- 2016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국내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의 양호한 수요 증가와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감소폭 완화에 힘입어 2015년의 부진에서 회복 모색
  - 시장별 자동차 수요는 북미, 유럽, 그리고 중국은 4~5%, 러시아 -15%, 브라질 -10% 전망
- 현대/기아차는 가격 인하, SUV 신차 투입, 중국 정부의 수요 진작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의 수요부진, 경쟁심화 등이 실적에 부담이 되면서,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한국 자동차 수요 전망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현대/기아차 합산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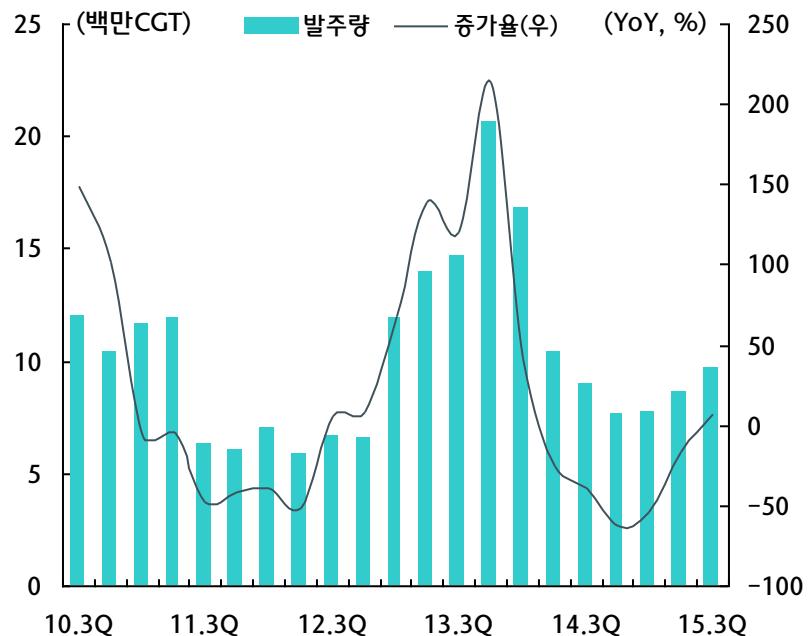


- 자료 : 현대차, 기아차,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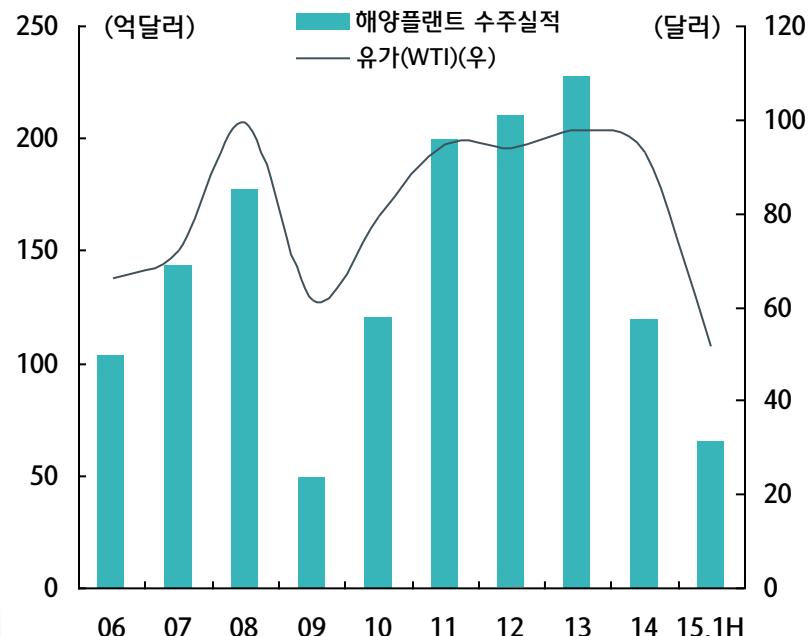
# 조선: 상선 및 해양플랜트 부문 모두 수주 부진 지속 전망

- 선박 공급 과잉 지속 및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상선 수주 부진 회복 난망
  - '15년 3Q 누적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1% 하락한 2천6백만CGT 기록
- 국제유가 반등은 예상되나, 그 폭이 제한적이어서 해양플랜트 발주량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과거 10년 분석 결과, 해양플랜트 수주와 유가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음 (Correlation 0.86)

## 전 세계 선박 발주량



## 해양플랜트 수주실적과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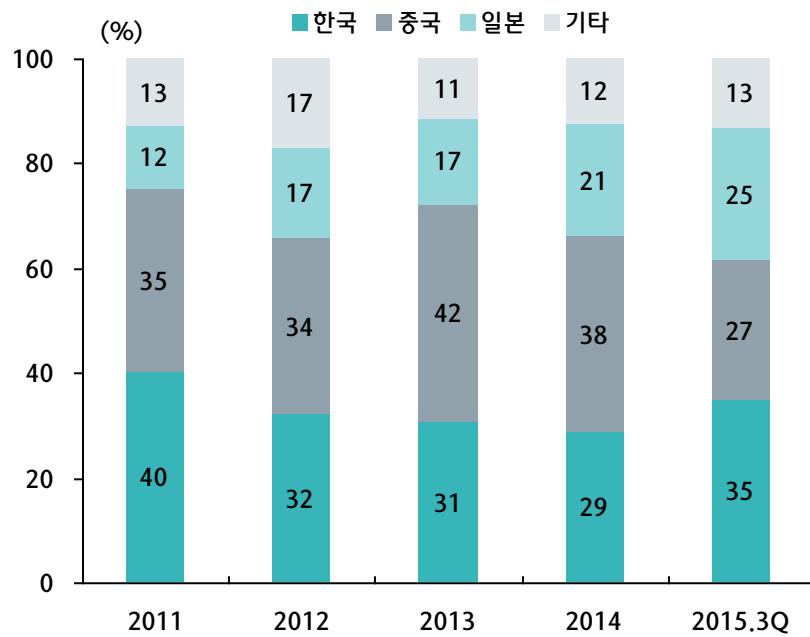
- 자료 : Clarkson

- 주 : 수주실적은 국내 Big 3 조선사 합계 - 자료 : 각 사 자료, EIA

# 조선: 한·중·일 조선소 간의 수주 경쟁 더욱 심화 우려

- 선박 발주 침체로 한·중·일 조선소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 조선소는 선전 중
  - '15.3Q 누적 기준 한국 조선소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및 탱커선 지속 발주로 M/S 1위 기록(35%)
- '16년은 엔저 지속 및 조선소의 수주잔량 감소로 한·중·일 조선소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일본 조선소는 엔저 효과로 M/S 25%('15년 3Q 누적 기준)를 기록하여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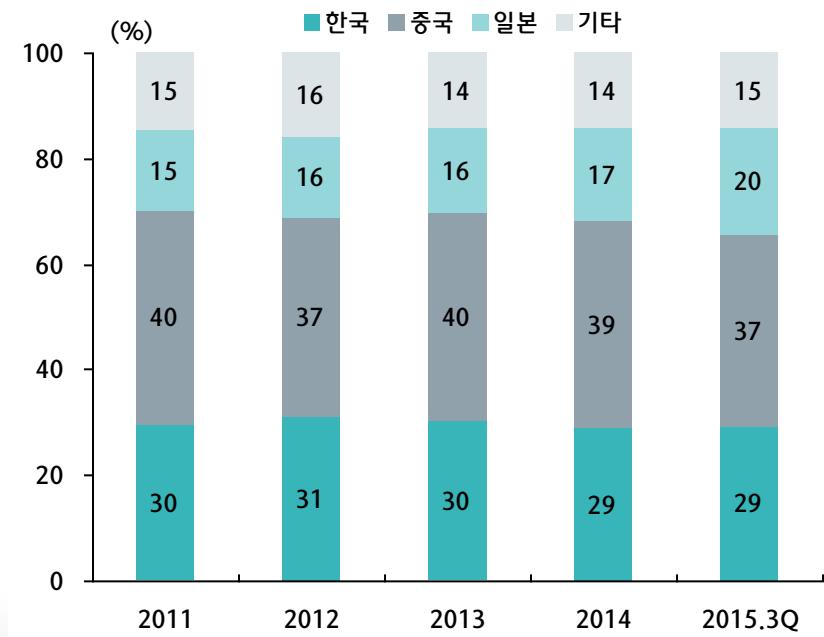
## 한·중·일 수주량 비교



- 주 : 2015년은 3분기 누적

- 자료 : Clarkson

## 한·중·일 수주잔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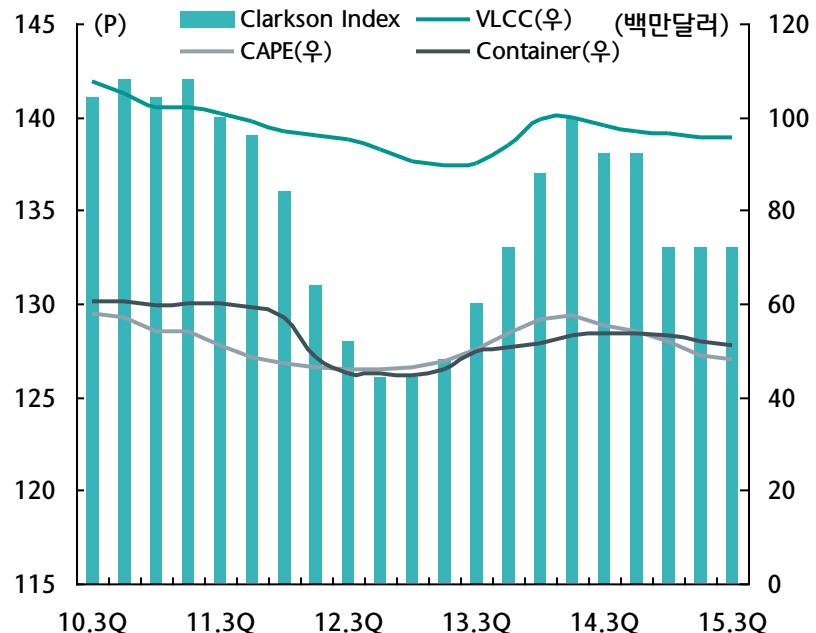
- 주 : 2015년은 3분기 누적

- 자료 : Clarkson

# 조선: 수익성 일부 개선 가능하나, 해양플랜트 우려 지속

- 상선 부문은 '14년 수주 물량의 본격적 건조로 '15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Clarkson 신조선가는 '13년 1분기 126p 기록 후 '14년 2분기 140p까지 상승
- '14~'15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해양플랜트 부문은 여전히 높은 수주잔고로 잠재 부실 가능성 有  
- 수주잔고 : 현대중공업 210억 달러, 삼성중공업 242억 달러, 대우조선해양 200억 달러 ('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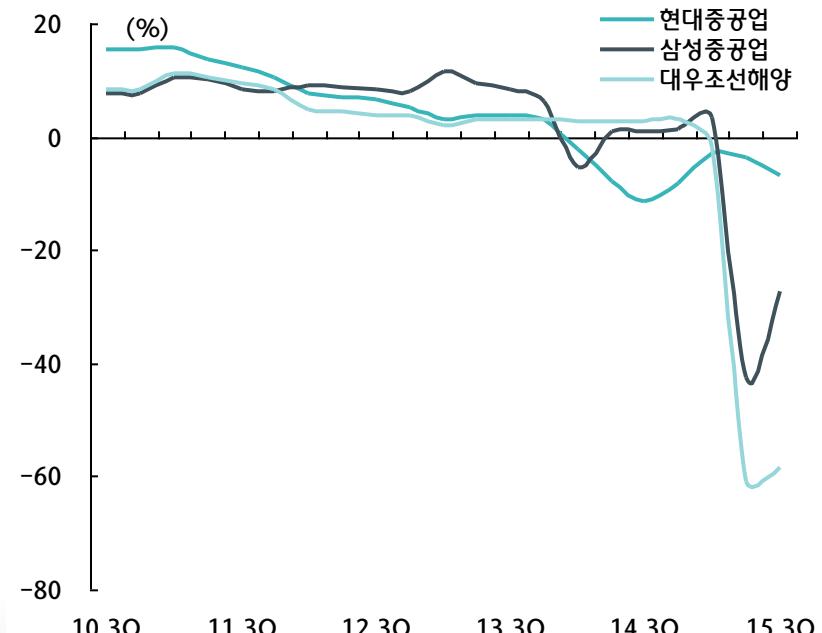
Clarkson 신조선가



- 주 : Container는 4,800TEU 기준

- 자료 : Clarkson

Big 3 조선사 영업이익률



- 주 : 별도재무제표 기준

- 자료 : Kis-Value

# 기계: 제조업 경기, 환율, 설비투자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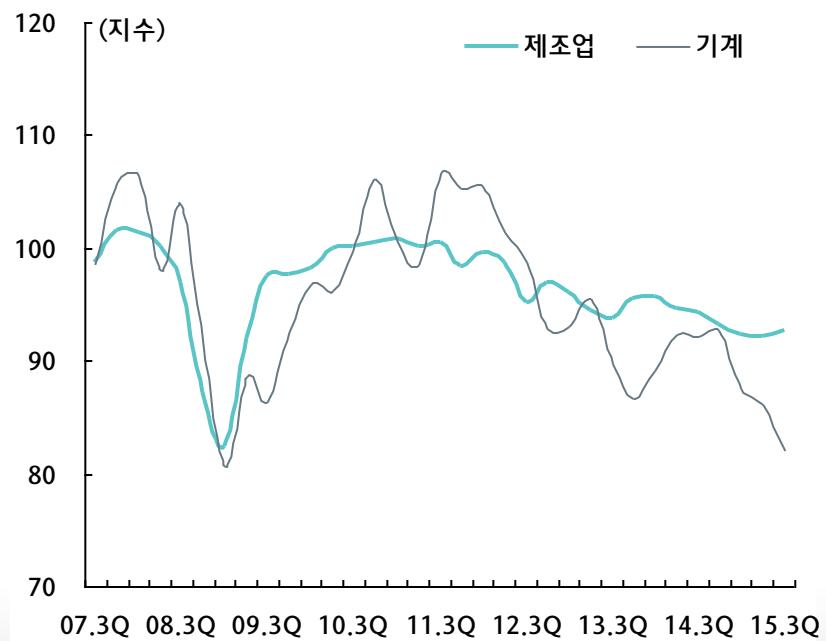
- 당초 기대했던 제조업의 경기회복 탄력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美 금리 인상 모색에 따른 외자 의존성이 큰 국내 시장의 대외 취약성 부각은 기계 업종의 경기 회복에 부정적
- 경기둔화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 그리고 엔저의 피로감이 체내에 누적되면서 불거진 수출 부진 장기화 등은 국내 기계 업종의 가동률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기계산업의 주요 리스크요인

구분	주요 영향 점검
제조업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당초 기대했던 자동차산업의 경기회복 탄력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조선, 철강 역시 회복세가 제한적이고, IT제조 및 서비스, 건설 등 여타 산업들도 성장 둔화가 뚜렷</li><li>특히, 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의 경우 주 수요산업인 자동차, 건설 산업 경기의 부침이 해당 산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li></ul>
환율 (엔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美 기준금리 인상 모색에 따른 글로벌 자금흐름 재편과정에서 외자 의존성이 높은 한국시장의 대외 취약성이 부각되는 한편, 원화가치 약세는 수출업체에는 호조</li><li>다만 2012년 말 시작된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인한 엔저의 피로감이 체내에 누적되면서 수출동력이 크게 약화</li></ul>
설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외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G2 리스크의 충격이 국내 경기회복세를 훼손하며,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움직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짐</li><li>통상 설비투자의 감소는 기계업체의 수주 감소로 이어지고, 3~4개월 후행하여 매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li></ul>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국내 제조업 가동률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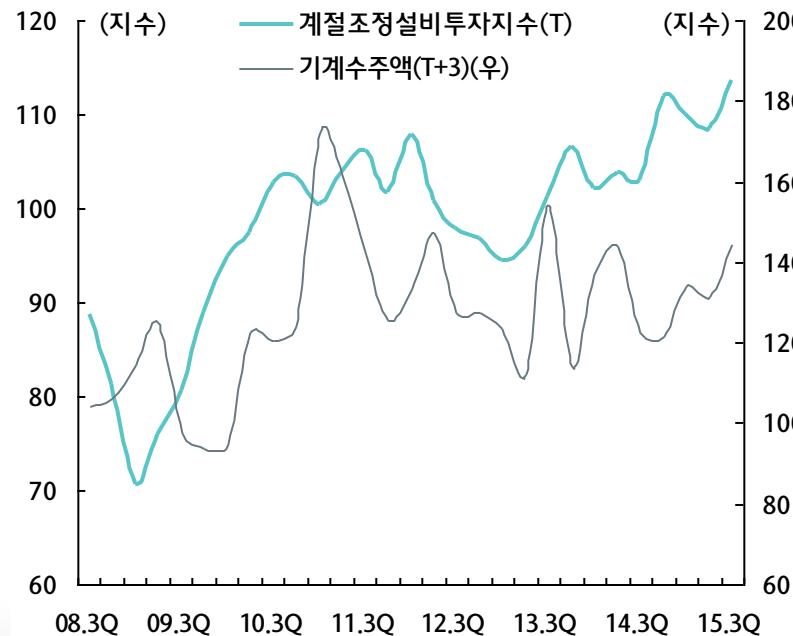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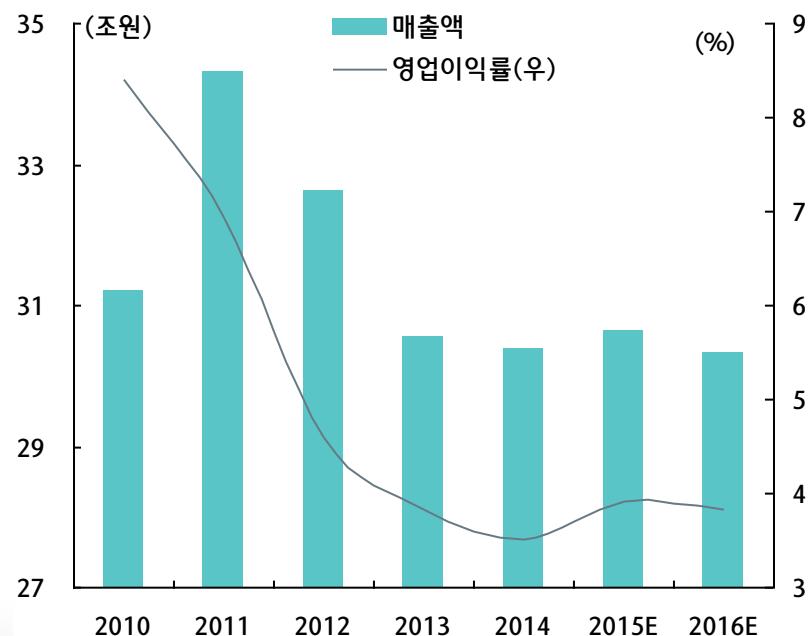
# 기계: 수요산업 부진, 엔저, 투자부진으로 실적개선은 기대

- 대외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 모색과 중국 성장둔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기계업종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14년 4/4분기 이후 견조한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기계수주액도 늘어나고 있음. 다만, 엔저에 따른 판가하락으로 매출이 정체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수준인 3% 후반에 그칠 전망

국내 기계수주액 동향 및 전망



국내 기계산업의 실적 전망



- 주 : 계절조정설비투자지수를 기준으로 T+3 기계수주액을 같이 그림  
- 자료 :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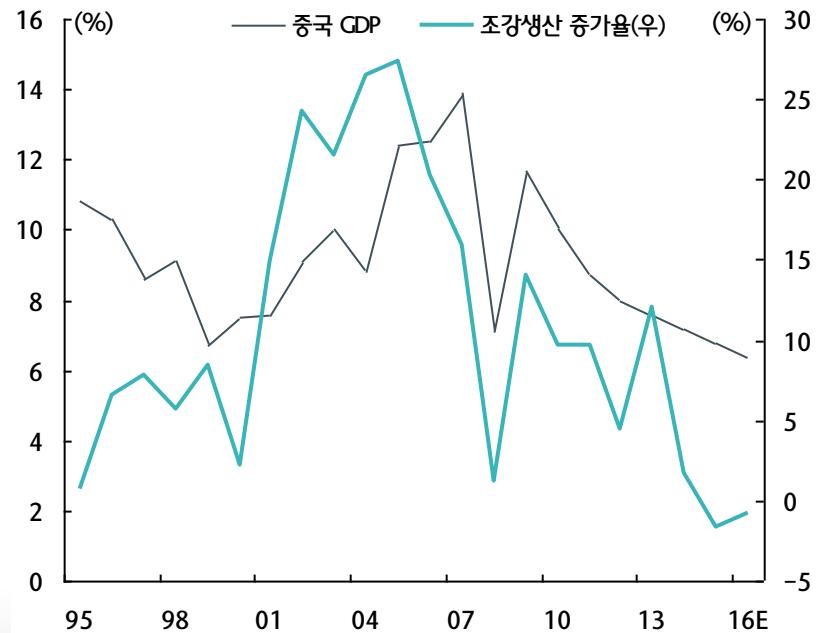
- 자료 : Kis-Value, 상장 109개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철강: 중국의 성장을 둔화로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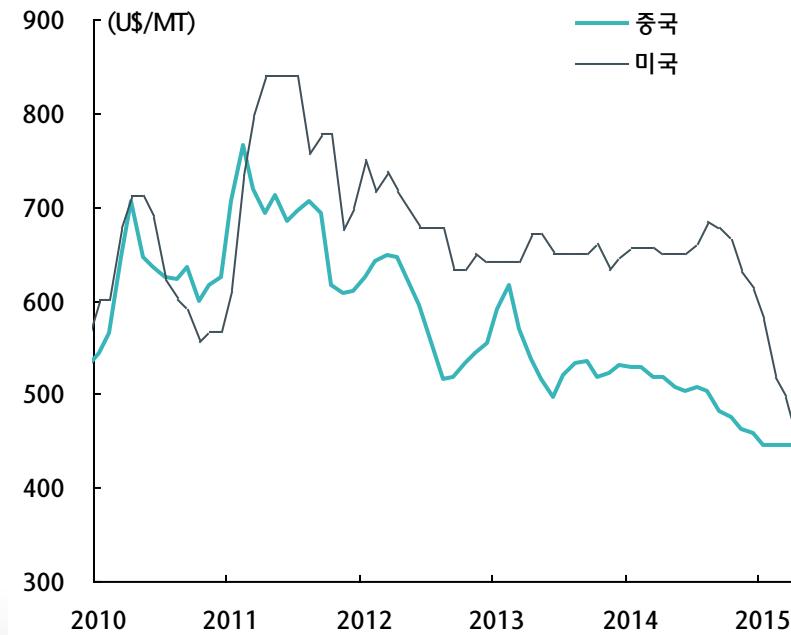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글로벌 철강수요의 1/2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글로벌 철강 수요는 침체국면에 진입
  - 2015년 이후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둔화와 함께 조강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 글로벌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환경 하에서 철강가격은 지역에 관계없이 약세 기조를 시현
  - 글로벌 철강산업 가동률이 70% 내외를 기록하면서 철강 가격은 추세적 약세를 지속할 전망

## 중국 경제와 조강생산 증가율



## 국제 철강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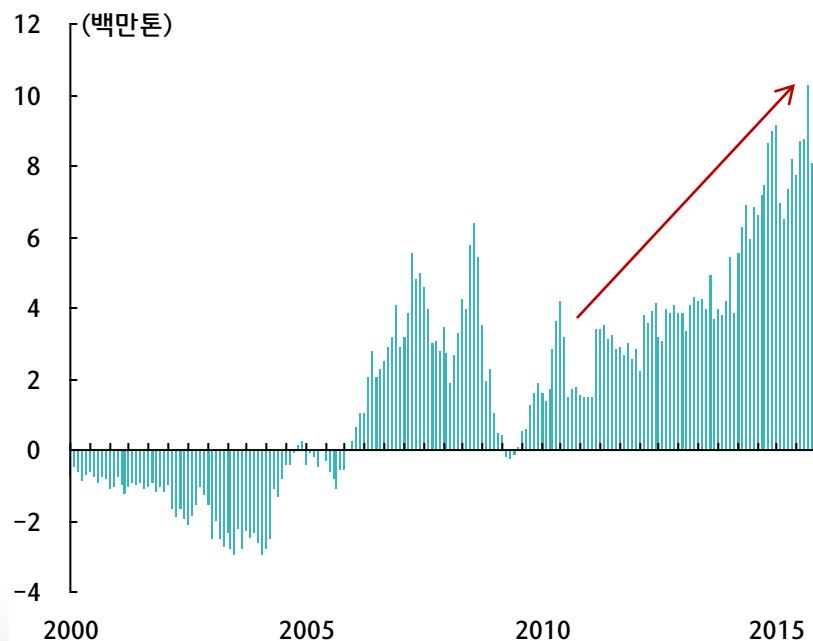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 자료 : Bloomberg

# 철강: 중국 철강업계의 저가 제품 수출 전략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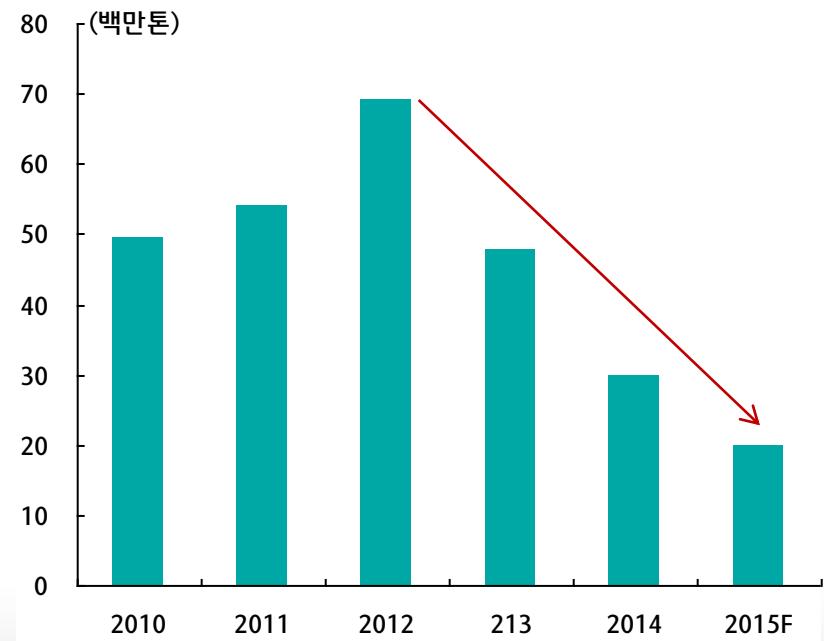
- 중국 내 소비 부진은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 확대를 야기하며, 이는 동북아 철강시장 수급에 부담
  -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난 중국의 강재 순수출량이 2014~15년 급증하였고, 2016년 확대 예상
- 한편 中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으로 철강산업의 고정 투자가 감소하고 시장 효율성이 소폭 개선
  - 그러나 단기간 내 효과는 미미하며, 장기적으로 중국 업체의 체질개선은 한국시장에 위협 요인

중국 강재 순수출량 추이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中 신규 제선능력 증가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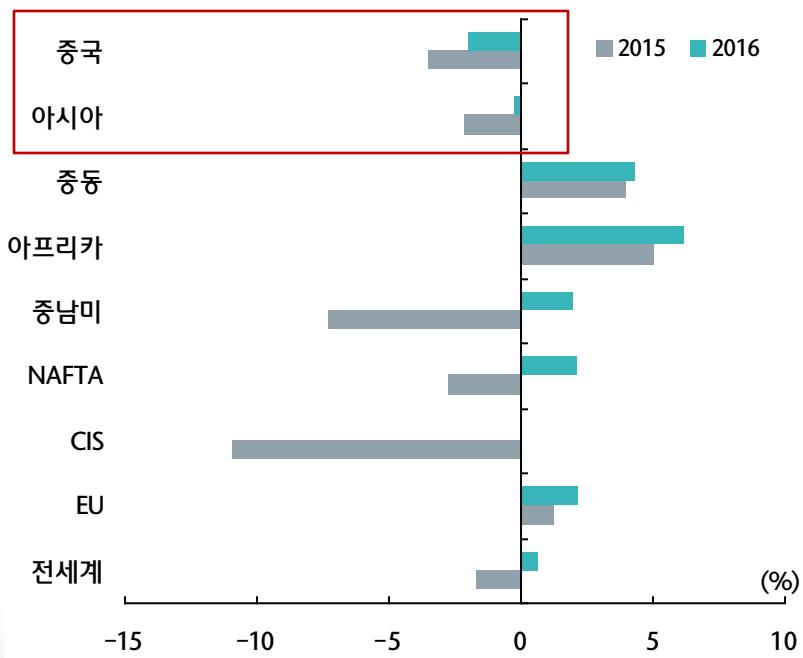


- 자료 : 업계자료 종합

# 철강: 국내외 철강수요는 1% 미만의 소폭 회복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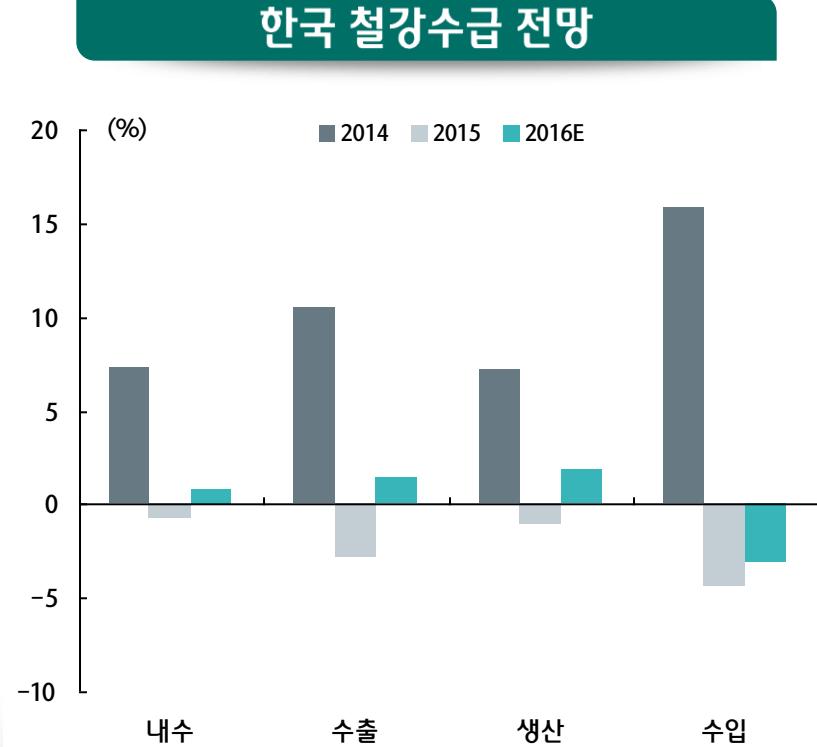
- 2016년 선진국 저성장 기조, 신흥국의 성장견인력 약화로 글로벌 철강 수요의 회복은 미미할 전망
  - WSA(2015년 11월)는 2016년 전체 철강수요를 전년대비 0.7% 증가한 15.2억 톤으로 예상
- 국내 시장 또한 건설, 조선, 자동차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1% 내외의 소폭 성장 예상
  - 2016년 국내 철강재 수급(전년대비 성장률) : 내수 0.8%, 수출 1.4%, 생산 1.9%, 수입 -3.1%

2016년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



-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

한국 철강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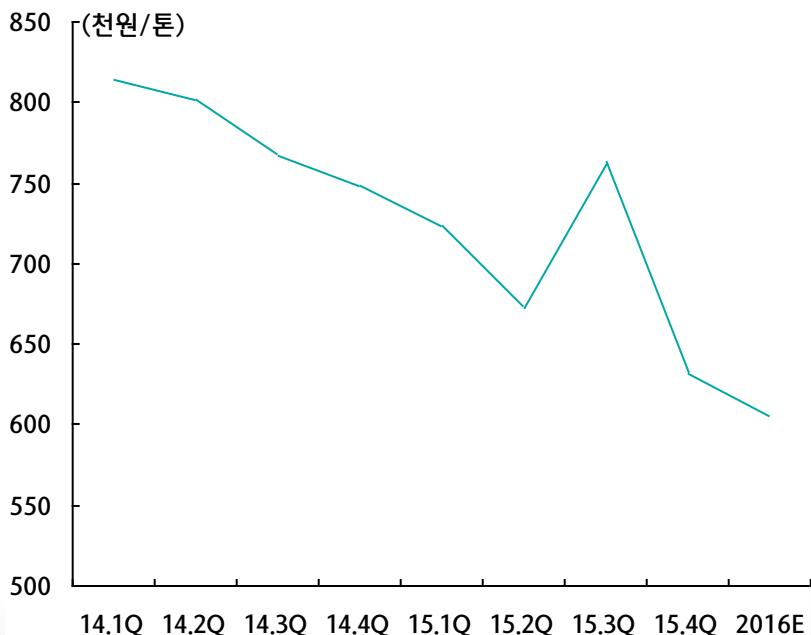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철강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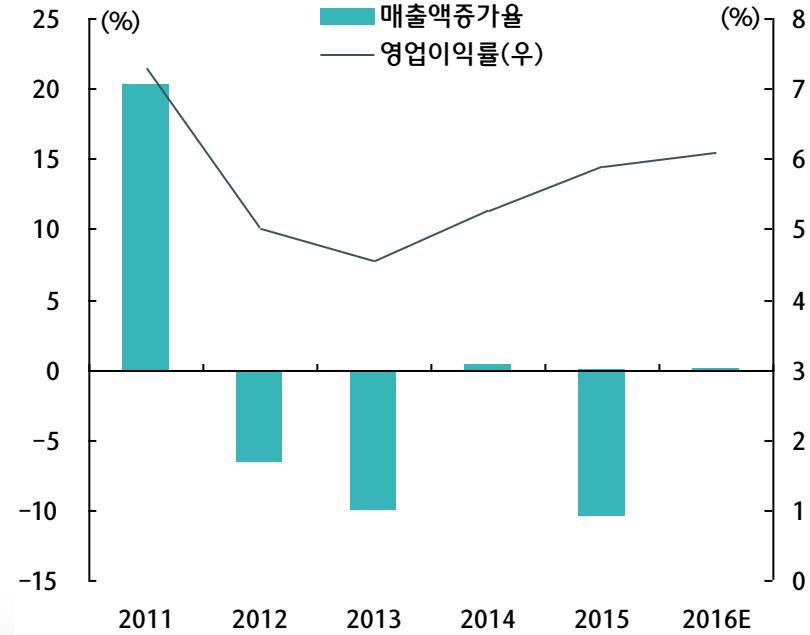
# 철강: 외형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수익률은 소폭 상승

- 국내 철강시장의 양적 성장이 1% 내외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체의 매출은 전년 수준에 그칠 전망
  -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과 원재료 가격 약세로 수요처의 제품 단가 인하 압력이 존재
- 다만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석탄, 철스크랩 등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수익률은 소폭 상승
  - 2016년 1차 철강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0.2%p 상승한 6.1%를 기록할 전망

국내 철강사의 제품 톤당 원가 추이



국내 철강업체 실적 전망



- 주 : PO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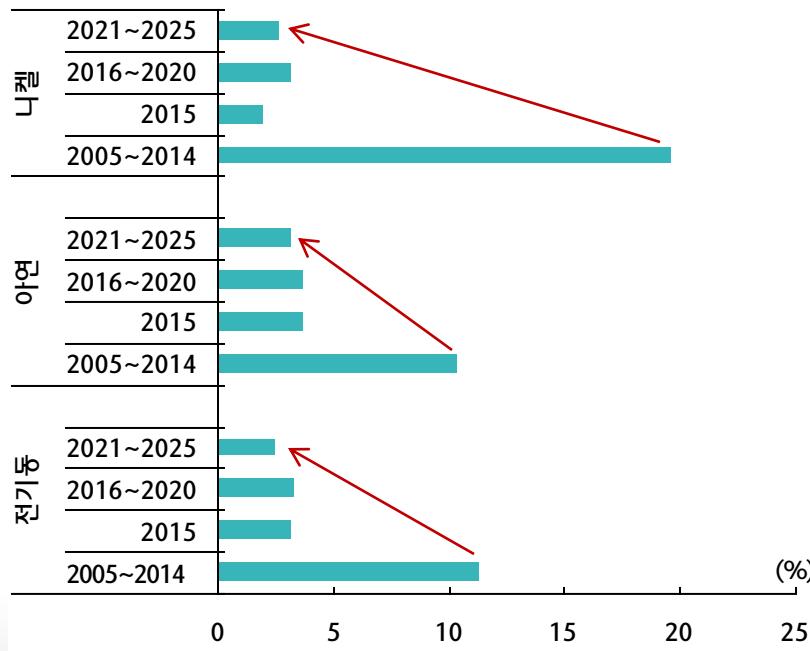
- 주 : 외감 이상 1차 철강제조업체 기준

-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비철금속: 중국 경제 둔화로 글로벌 비철금속 수요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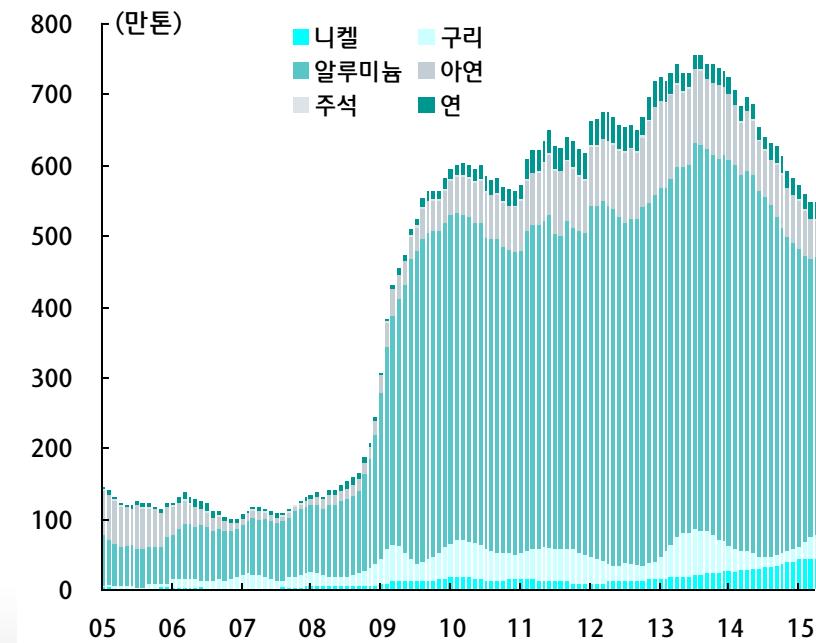
-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미만으로 둔화되면서 글로벌 비철금속의 실수요 감소 예상
  - 글로벌 비철금속의 총수요 중 중국 수요가 1/2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핵심 변수
- 이와 더불어 글로벌 비철금속 재고가 동반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 추세상 여전히 높은 수준
  - 2015년 말 현재 6대 비철금속의 LME 재고 수준은 금융위기 전의 2.5배 정도

중국 비철금속 수요 증가율 전망



- 자료 : BGRIMM Lilan Consulting

LME 비철금속 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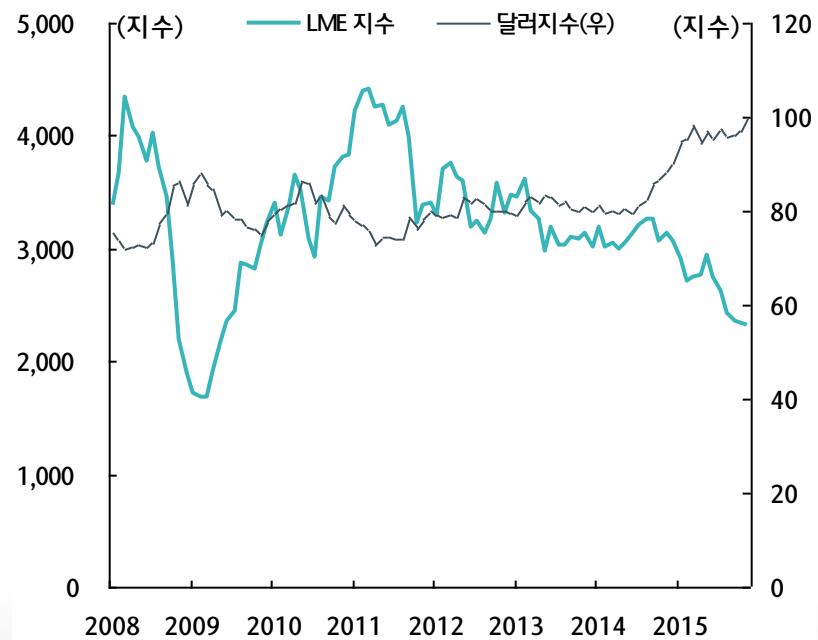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 비철금속: 투기수요 부진하여 비철금속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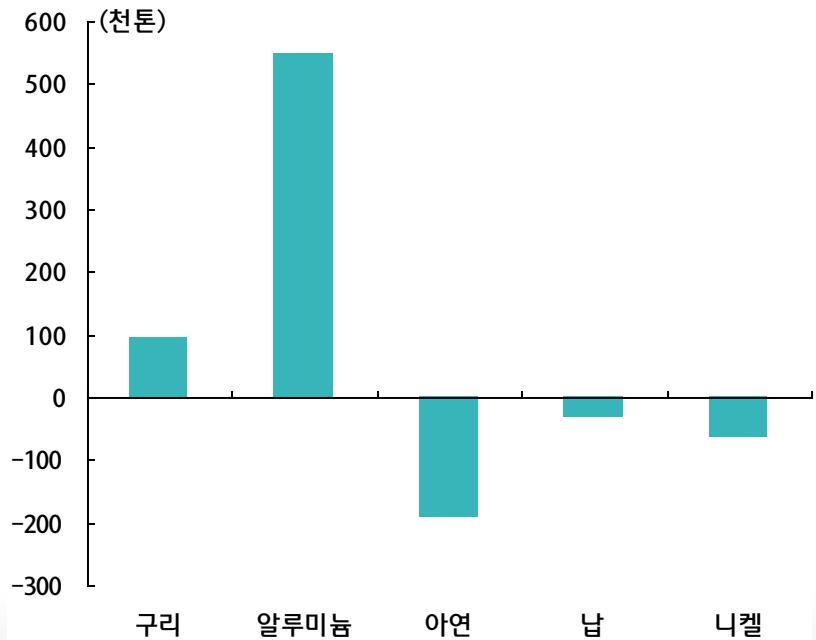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16년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달러 강세가 예상되면서 비철금속에 대한 투기수요가 저조할 전망
  - 2015년 이후 달러지수 상승과 함께 LME 가격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며, 2016년 더욱 심화 예상
- 실수요 및 투기수요의 동반 부진으로 비철금속 가격 약세가 예상되나 품목별로 다소 차별화 예상
  - 공급과잉인 구리, 알루미늄의 가격 하락폭이 크며, 수요 우위인 아연, 니켈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

달러가치와 LME지수 추이



2016년 비철금속 품목별 공급과잉 전망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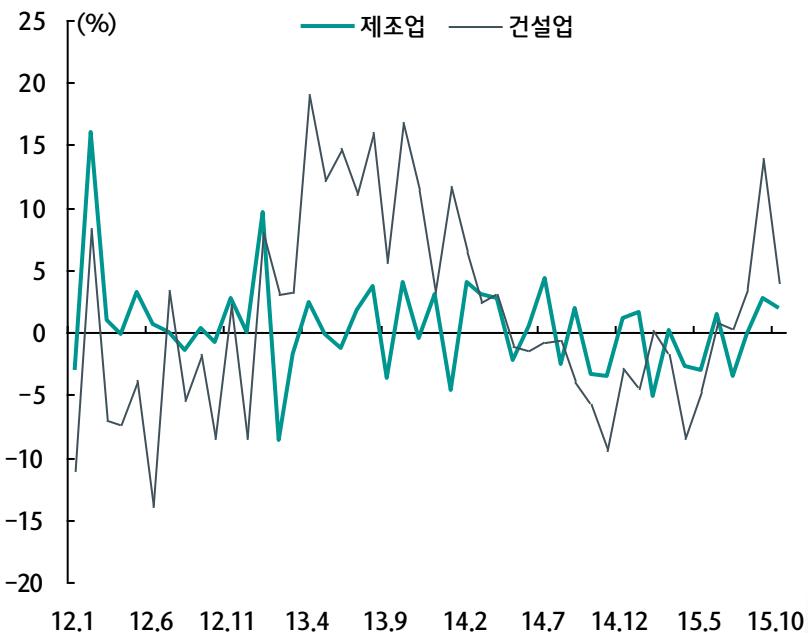
- 자료 : 업계 자료 종합

# 비철금속: 국내 전방산업 부진하여 수요 회복 미미할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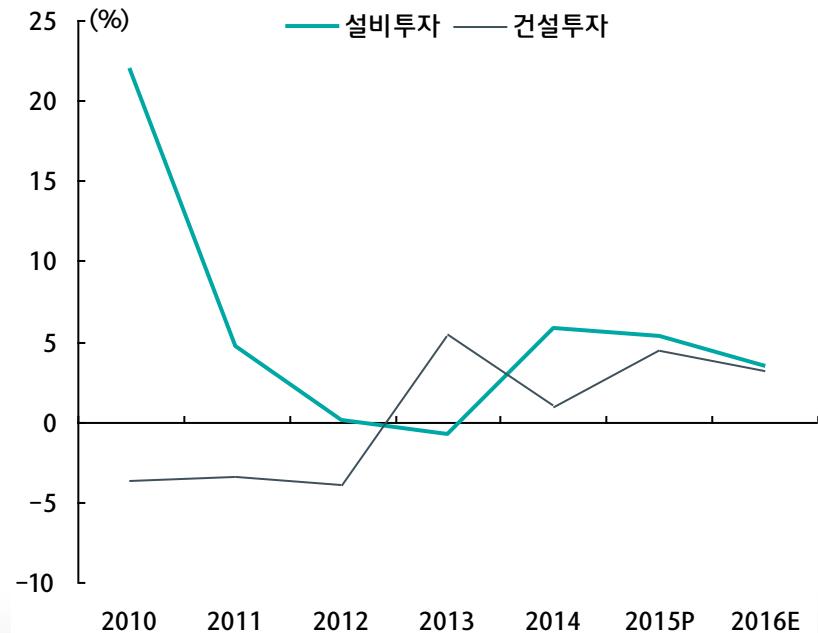
- 2016년 국내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철금속 수요 회복 미미할 전망
  - 비철금속은 단일금속 또는 합금 형태로 전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수요가 산업 경기에 연동
- 전방산업인 자동차, 기계, 조선 등의 제조업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 경기 회복도 미진
  - 2016년 자동차 및 기계 내수 정체, SOC 예산 삭감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 조선 수주 감소 예상

국내 주요 수요산업 생산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국내 설비 및 건설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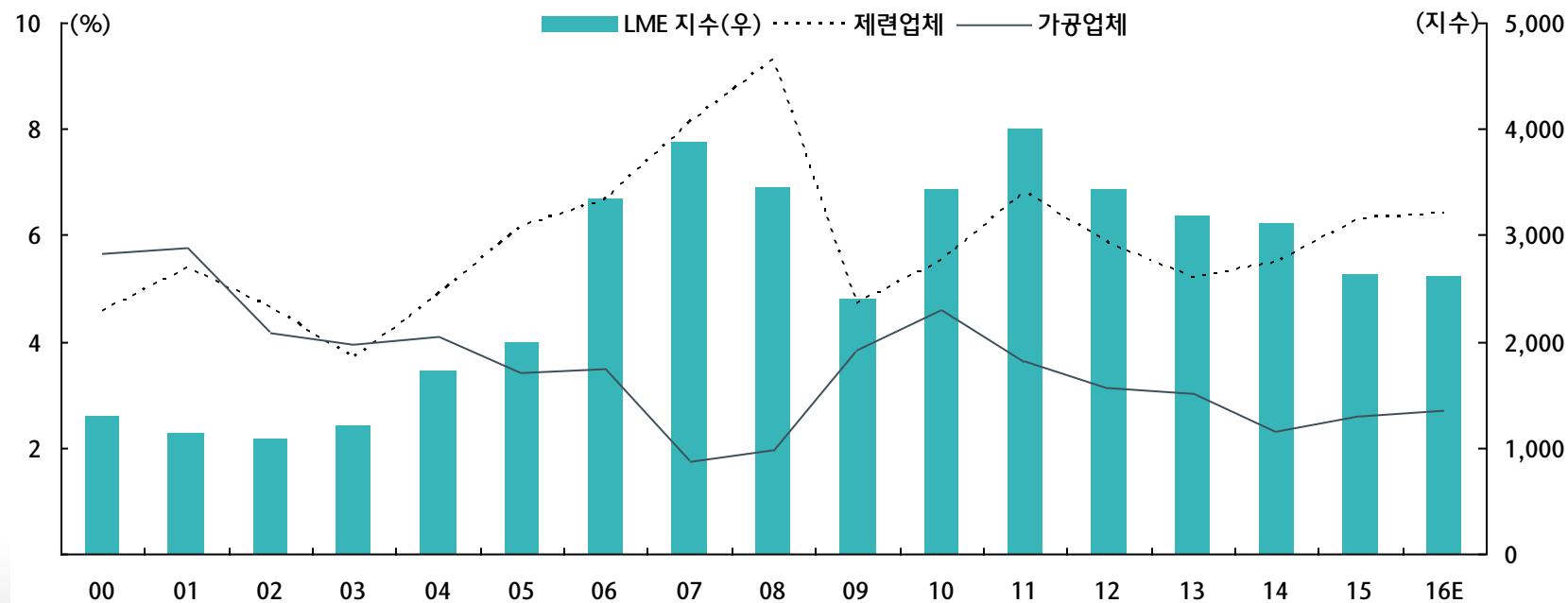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비철금속: 부진한 업황이 지속되며 업체별 부익부 빈익빈 심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16년 국내외 수요산업의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비철금속 업체의 시장 성장은 제한될 전망
  - 다만, 비철금속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가공업체의 경우 원가율 안정으로 수익률은 소폭 회복
- 제련업체의 경우 리딩기업과 그 외 중소 업체간의 실적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는 한 해 예상
  - 독보적 Power를 겸비한 고려아연은 공정합리화, 부수수익 등으로 불황기 실적 방어가 가능

## 국내 비철금속 업체의 수익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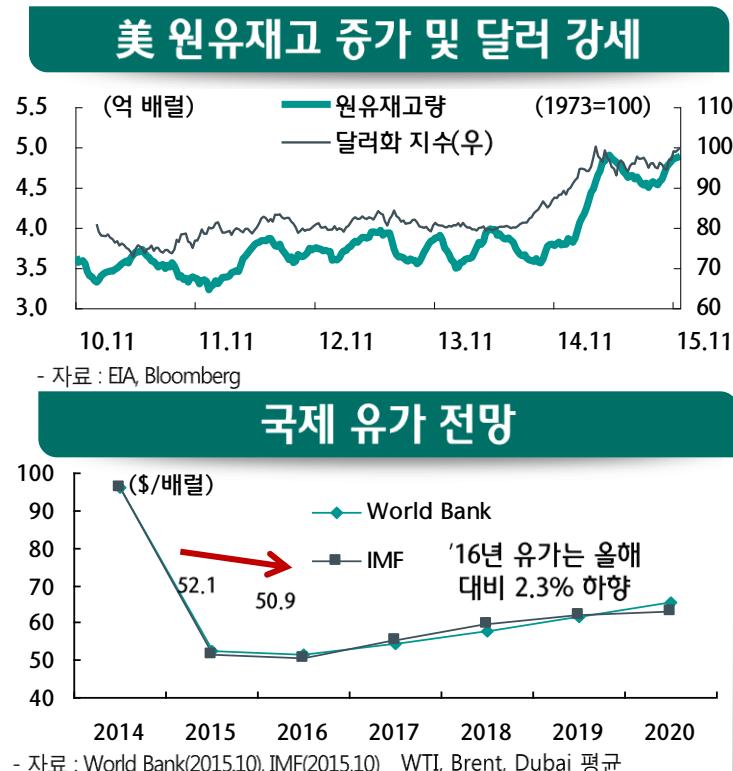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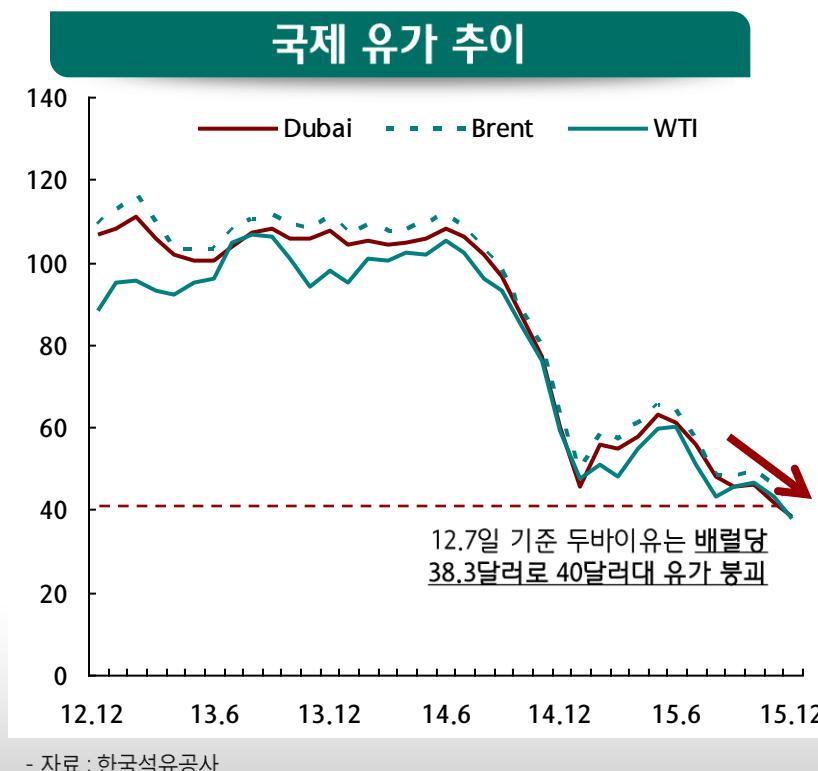


- 자료 : Kis-Value, Thomson Reuters Datastream,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유: 2016년 국제유가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

- OPEC 생산목표 감축 합의 불발 및 이란 원유 증산 계획 발표로 유가 하락 가속화
  - OPEC(12.4) 감산합의 실패와 이란 원유 수출 2배 증산계획 발표('16년 2Q 이후 수출 예상\*)
- 12월 연준 금리인상이 유력해짐에 따라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유가 하방 압력
  - 국제 원유시장은 달러화 거래로 달러가치 상승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단, 美 원유재고는 '15년 급증 이후 '16년부터 감소할 전망으로 유가급락을 저지시키는 요인
  - '15년 원유시추리그 수가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투자 감소로 '16년 생산은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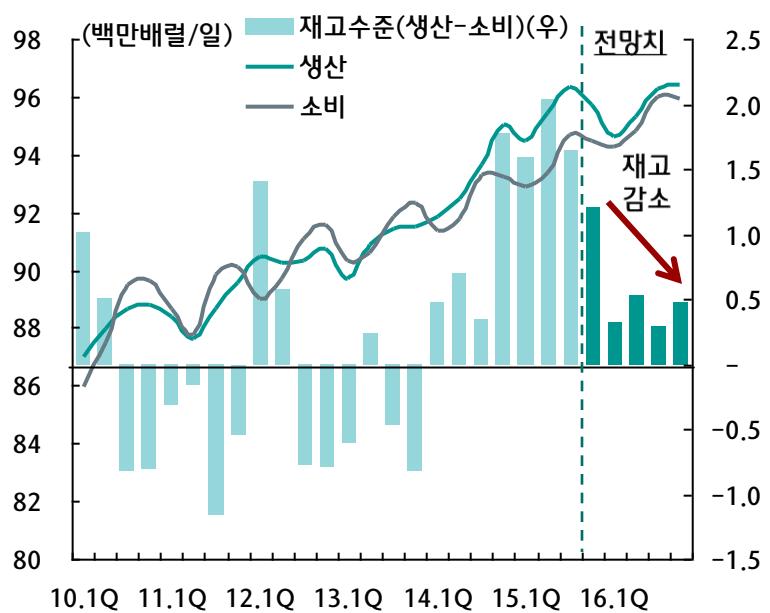
\* IEA 2015년 11월 전망자료



# 정유: 2016년 전세계 원유 수급은 소폭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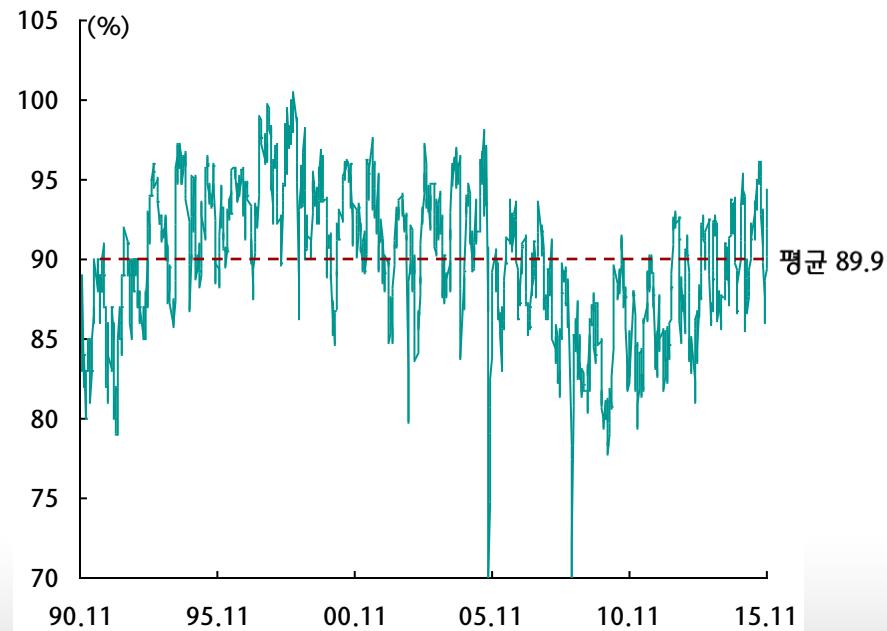
- '16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분이 생산 증가분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EIA 전망)
  - '16년 수요증가분은 일평균 141만 배럴이나, 생산 증분은 18만 배럴로 상당량의 재고 감소 전망
- 전세계 석유 정제설비 약 20%를 차지하는 미국 설비가동률은 '15년 현재 고점으로(91.3%) '16년 가동률은 유지 또는 소폭 하향세가 예상
  - '11년 이후 설비 가동률 지속 증가: 85.4%('11) → 87.7%('12) → 88.1%('13) → 90.1%('14)

## 전세계 원유 생산 및 소비



- 자료 : EIA('15.11)

## 미국 정제설비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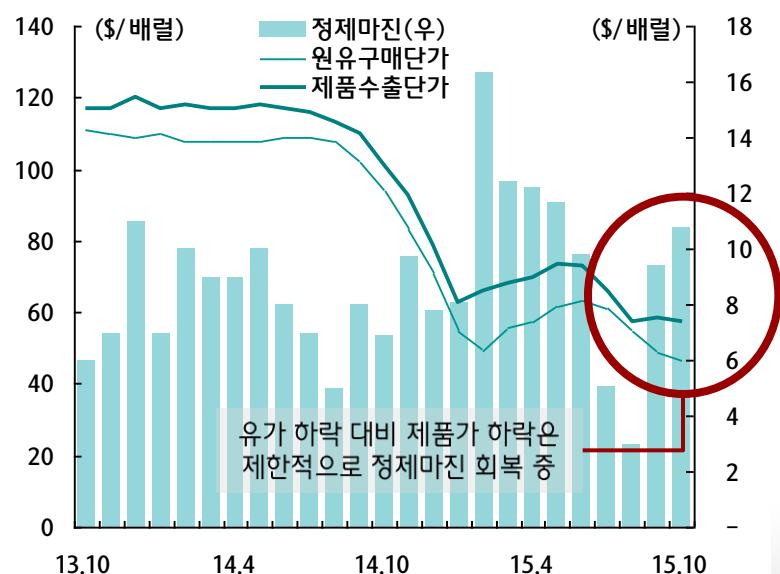


- 자료 : EIA('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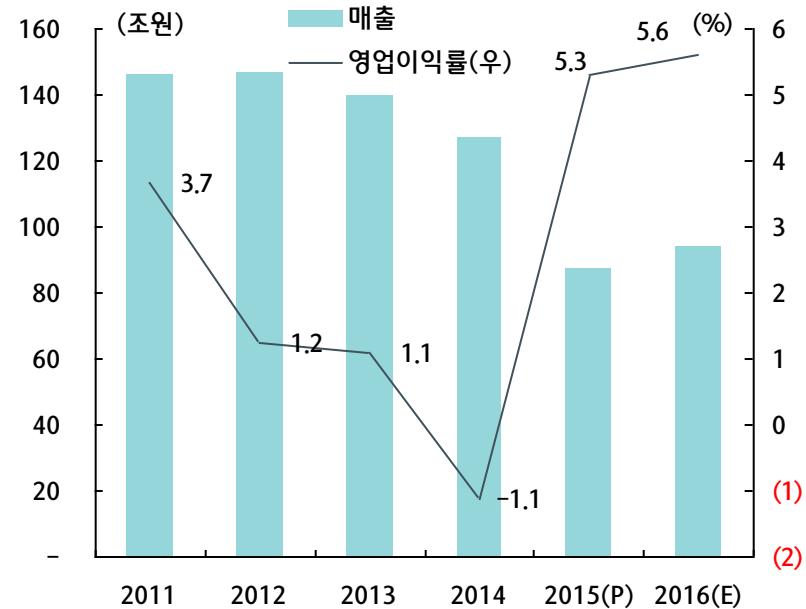
# 정유: 국내 제품 생산 확대와 정제마진 회복세 지속 전망

- '16년 유가 급락 시 정유업계의 재고 평가손실이 우려되나, 글로벌 수급 개선에 의한 제품가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 안정기조 하에서 정유사 정제 마진율은 높게 유지될 전망  
- '15.12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40달러 미만으로 하락 중, '16년 1분기 재고평가손실 대비 필요
- 또한 2016년에도 내수용 제품 소비 증가 및 산업용 제품(납사 등)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여겨져 매출은 가격 인하 대비 수요 증가가 우세하여 매출액은 소폭 상승 예상

## 국내 정제마진 추이



## 정유사 합산 실적 전망



- 자료 : Petronet

- 주 : 정제마진= 제품수출단가 - 원유가매단가

- 자료 : Kis-Value, 에스케이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합산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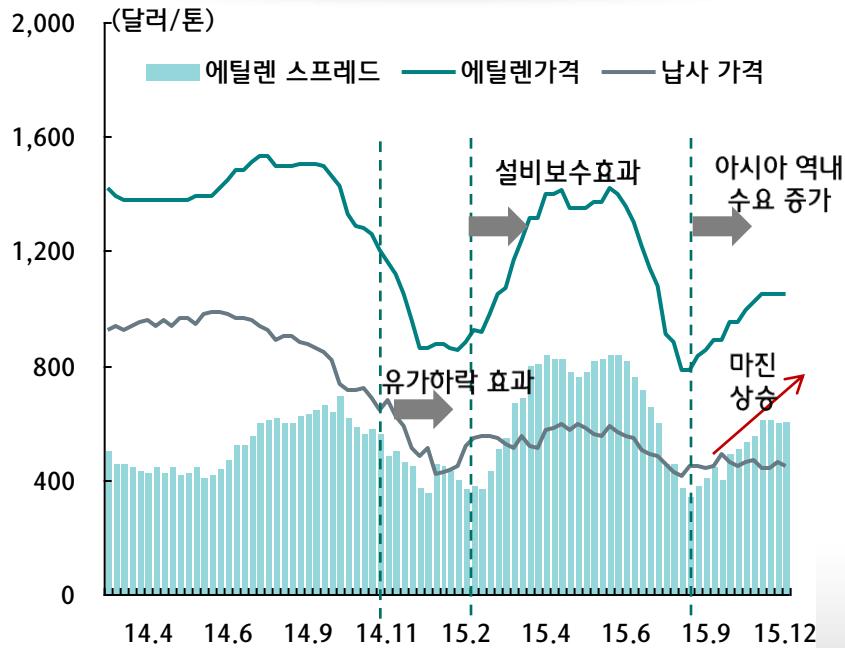
# 석유화학: 에틸렌 수급 밸런스는 안정적으로 유지 전망

- 국내 2015년 NCC업체들의 대규모 정기보수 등 물량 조절을 통한 판매가격 상승 및 저유가 효과에 의한 낮은 원재료(납사)가격 부담으로 수익성 상승 실현
- 또한, 중국에서 대규모로 예정된 석탄화학설비(CTO\*) 증설이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 감소로 지연되면서 에틸렌의 아시아 역내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
  - NCC 납사 가격이 배럴당 54달러(톤당 400달러)이면 CTO와 가격경쟁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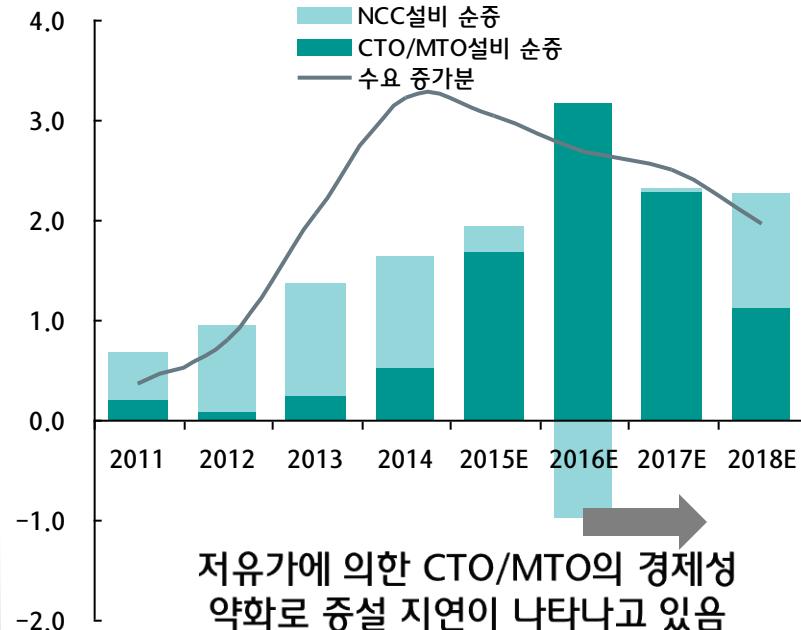
\* Coal to Olefin;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생산원가(Cash cost) 산출 결과

## 에틸렌 수급동향



## 아시아 역내 에틸렌 설비 증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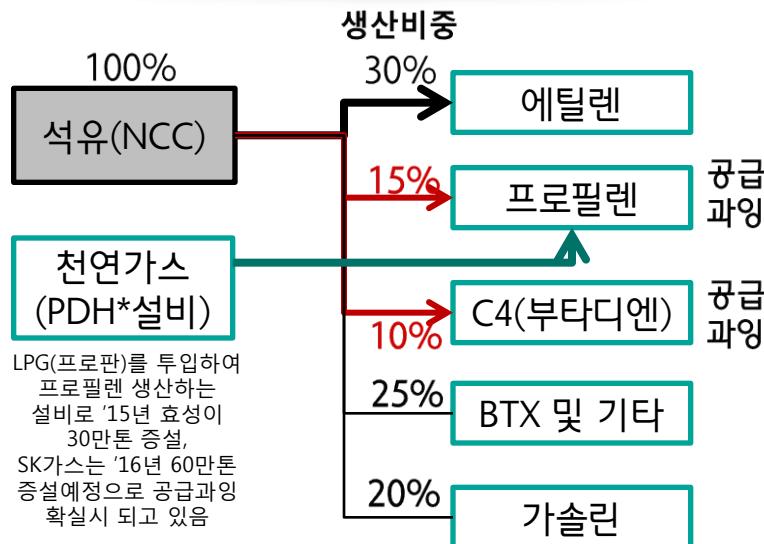
- 자료 : Cischem

- 자료 : IHS

# 석유화학: 에틸렌 제외 기초유분들은 공급과잉 전망

- 에틸렌 수요 증가에 따른 NCC 가동 증가는 프로필렌, C4(부타디엔) 등 에틸렌을 제외한 다른 기초 유분의 공급 과잉을 유발시키고 있음
- 프로필렌은 중국 내 자급률이 85%를 넘어서고 있으며, '15~'16년 국내 대규모 프로필렌 제조 설비(PDH) 증설 예정에 따른 과잉 공급이 우려됨
- 합성고무제조에 쓰이는 C4(부타디엔) 계열은 타이어 수요 부진 및 천연고무 시황 악화에 의한 가격 및 이익률 하락이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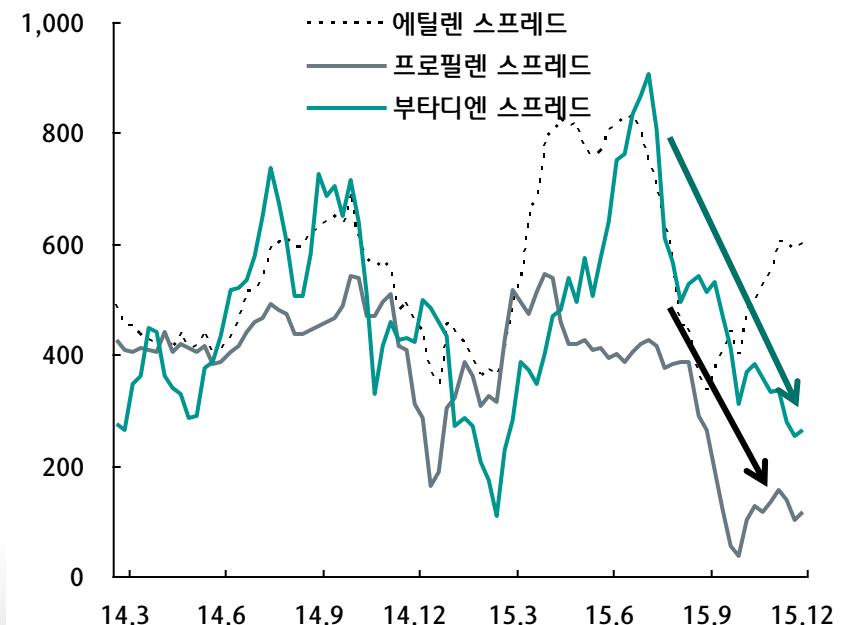
## 기초유분 공급과잉 메커니즘



에틸렌 수요 증가에 따른 NCC 가동률 증가로 인해  
**다른 기초 유분 생산까지 증가**하여 공급과잉 유발

\* PDH (Propane De-Hydrogenation): LPG(프로판)에서 프로필렌을 제조하는 설비

## 기초유분의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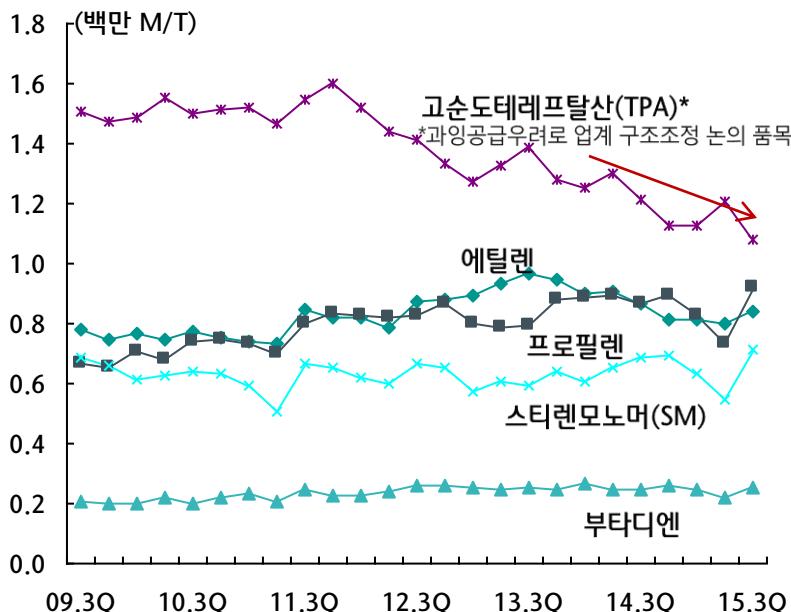


- 자료 : Cischem

# 석유화학: 석유화학 제품별 중국 자급률 우려

- 화섬원료인 고순도테레프탈산(TPA)은 중국 자급률이 100%가 되면서 수출 급감 및 가격 급락
  - TPA 가격은 '14.6월 톤당 1000원에서 '15.12월 현재 605원으로 약 40% 하락
- 중국 자급률이 80%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수급 구조 개선이 필요함
  - 폴리우레탄원재료인 PO는 국내 30만톤 생산규모이나 '18년 100만톤 추가 증설 계획 중
  - 탄소섬유 재료인 AN 역시 국내 85만톤이나 '17년 39만톤 추가 증설 계획 중

## 국내 주요 석유화학제품별 출하량



## 중국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2013	2015	2020	
에틸렌 유도품	PE	57	63	76
	PVC	95	95	96
	SM	50	52	62
프로필렌 유도품	PP	73	85	94
	PO	80	93	88
	AN	57	91	100
C4계열 유도품	BR	80	87	94
	SBR	81	87	91
	ABS	57	63	58
PX계열 유도품	TPA	91	103	107
	PX	47	58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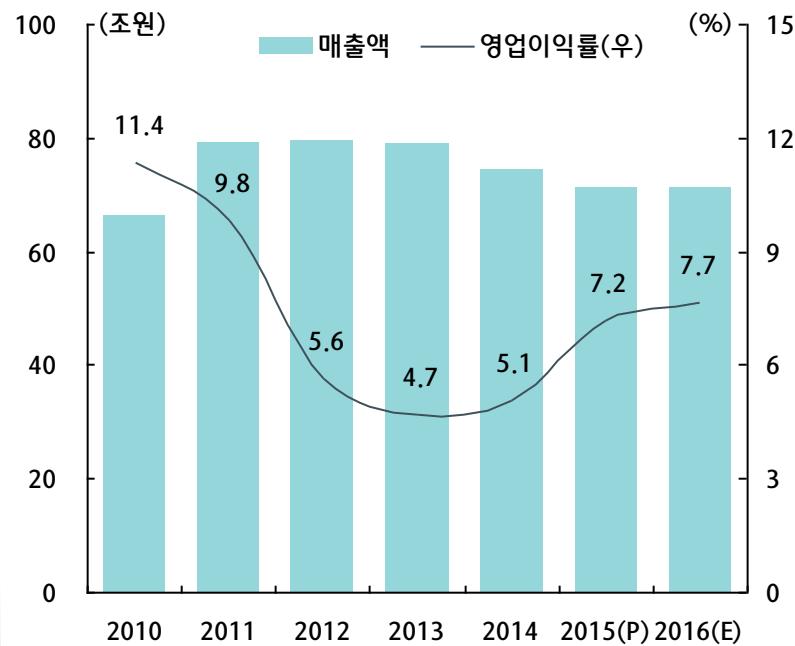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 자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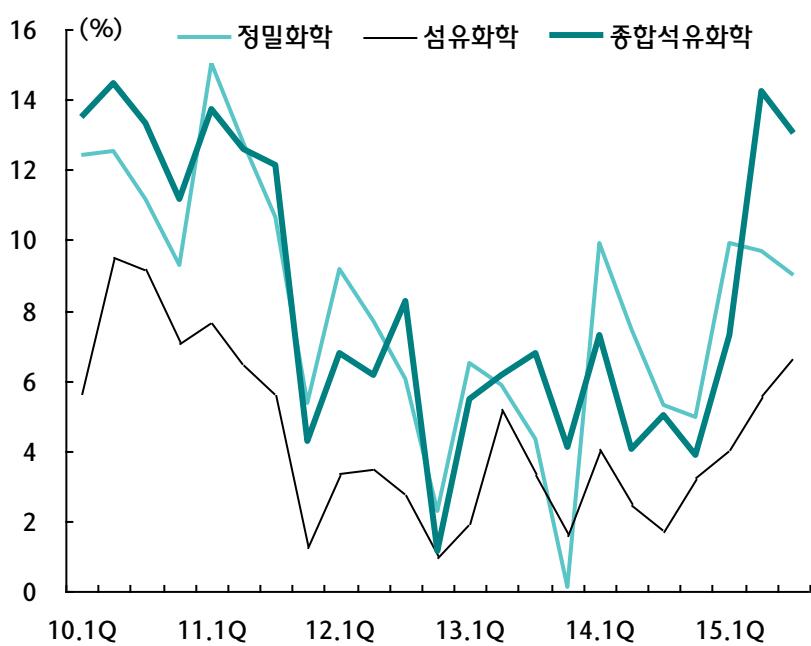
# 석유화학: 종합석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이익률 유지 전망

- 2016년 석유화학 매출은 에틸렌 부문의 생산 증가 효과를 타 제품들의 수급 불균형에 의한 생산 감소 효과가 상쇄시켜 전체적인 수준은 '15년 대비 1%대의 매출 상승 예상'
- 이익률은 유가의 추가 인하에 의한 이익률 확대 효과가 반영되어 소폭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종합석유화학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예상됨

석유화학 산업 매출 및 영업이익률



석유화학 업종별 분기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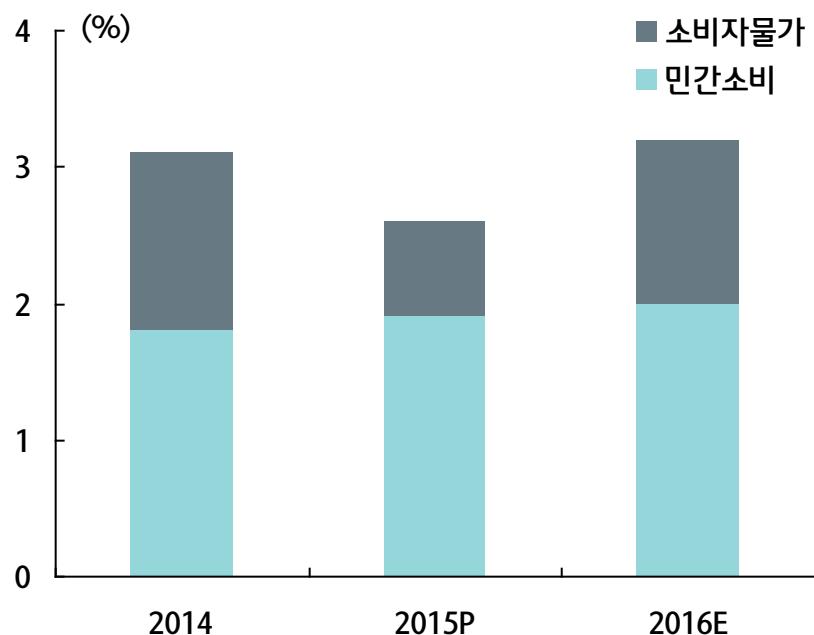
-자료: Kis-Value ('화학섬유제조업' 6개사, '기타화학제품제조업 38개사,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 17개사 합산)

-자료: Kis-Value (분기별 합산 영업이익률, 섬유화학은 '화학섬유제조업'(6개사), 정밀화학은 '기타화학제품제조업(38개사), 종합석유화학은 '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17개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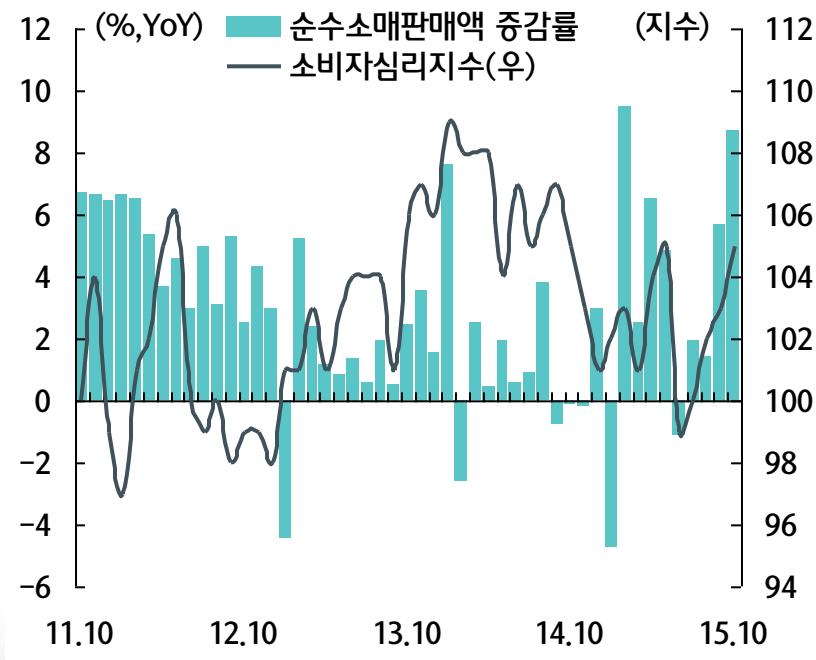
# 소매유통 : 민간소비, 물가의 제약 속에 소폭의 회복 예상

- 2016년, 노후 대비와 가계 부채 조정에 따라 민간소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도 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 부재로 제한적 회복에 머무를 전망
- 다만, 그 동안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선박사고, 전염병 사태 등으로 크게 침체되었던 소매판매액은 기저효과와 이연소비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3~4%의 소폭의 회복을 예상
  - 영업 규제, 선박사고 등으로 심리지수와 괴리를 보이던 소매판매액은 최근 동조화를 나타냄

민간소비, 소비자물가 전망



순수소매판매액, 소비심리지수



- 주 : 2015, 2016년 자료는 각각 연구  
소 추정치, 전망치  
- 자료 : 한국은행, Hanaif

- 자료 : 통계청

- 시장의 큰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널간에 영역 뺏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이러한 경쟁은 결국 소비자 트랜드와 구성 변화에 적합한 정도가 승수처가 될 것으로 예상
- 저렴한 가격과 단순화된 과정을 중시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결과물을 원하는 소비 트렌드 지속
- 1인가구와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중국 등 국외의 소비자 유입이 증가

## 소매유통업과 관련된 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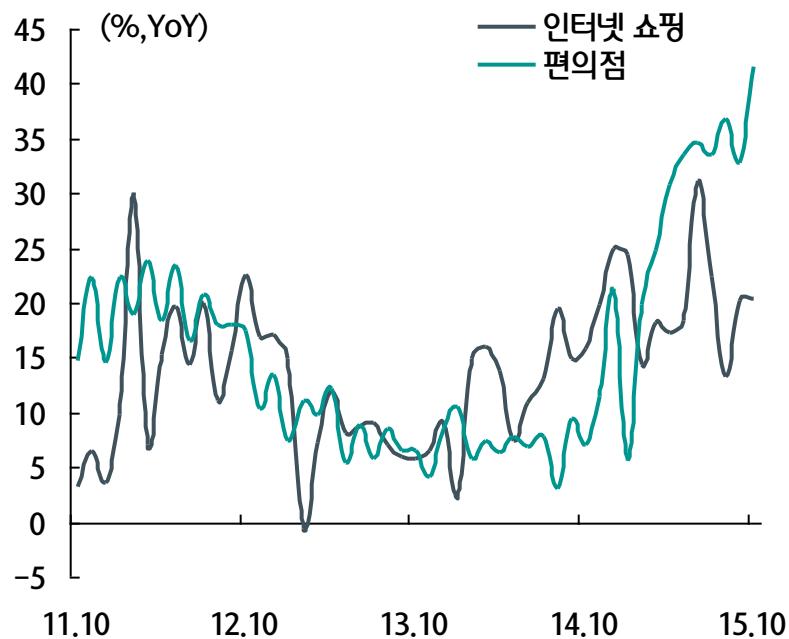
구분	내용	영향
소비 트렌드 전망	합리적 소비	가격대비 품질을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경쟁력 확보 중요</li> <li>-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 중요해짐</li> </ul>
	정보 공유	소비자간 정보 공유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직구 등 특수한 소비 행태가 일상화</li> <li>- 체리 피킹 행위의 증가로 마케팅 목표가 희석됨</li> </ul>
	차별화 욕구	명품 소비도 있겠지만, 맛집이나 특이한 상품을 소비하거나 남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B 상품 등을 통한 차별화 노력 증가</li> </ul>
	중저가의 위기	저가의 합리적 소비와 고가의 가치 소비 사이에서 중간 가격 제품에 대한 무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중간한 중저가 브랜드들의 부진</li> </ul>
	콘텐츠 소비	1. 문화, 여행 등 무형상품의 소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더 나아가 유형상품도 콘텐츠가 중요 (예 : '허니버터칩' 때처럼 SNS에 자랑하고 공유하거나 테마가 있는 몰링 소비를 함)</li> </ul> 1. 무형 상품 소비의 유형 상품 소비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콘텐츠를 함께 소구하는 제품이나 쇼핑몰이 유리</li> </ul>
	단순화	'백종원 레시피'처럼 단순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큐레이션 서비스의 발달</li> <li>- 고품질 HMR의 증가</li> <li>- 근거리 쇼핑의 성장</li> </ul>
소비자 구성의 변화	1인 가구	1인 가구가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포장 삼품, HMR의 소비 증가</li> </ul>
	인구 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가 가장 활발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체되고 고령화 인구의 비중 증가</li> <li>- IT 친숙도가 높은 인구의 비중 증가</li> </ul> - 소매유통업 성장 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쇼핑, 해외 직구의 증가</li> </ul>
	중국관광객의 유입	국내 시장의 정체 상황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소비자의 유입은 빠르게 증가</li> </ul> - 중국인 대상 상품의 판매 증가

# 소매유통 : 환경 변화에 적합한 편의점, 온라인 쇼핑은 성장 예상

한국소비자영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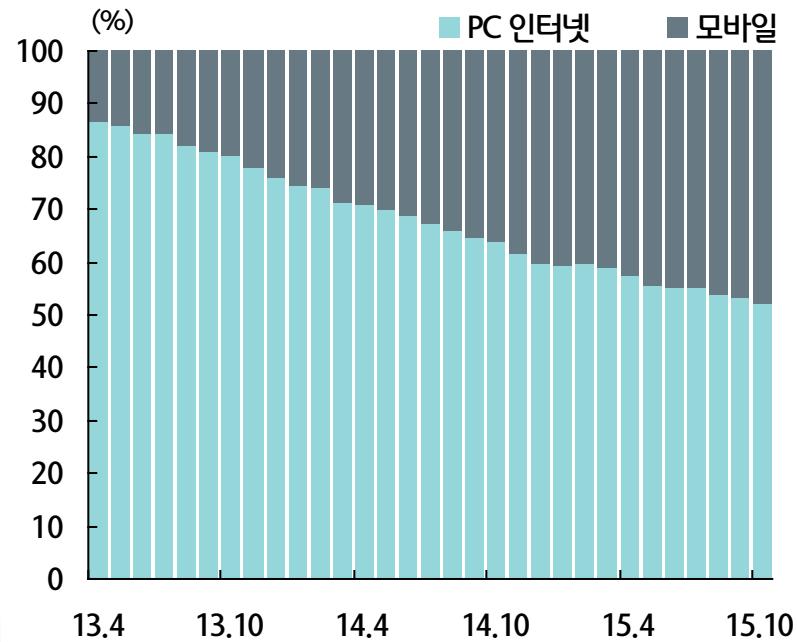
- 편의점은 1인 가구 증가, 근거리 소비에 적합하여 양호한 성장이 기대됨
  - 다만, 지금의 고성장은 담뱃값 인상이 큰 부분을 차지, 내년엔 10%대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 인터넷 쇼핑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고 큐레이션, 일일 특가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모바일 쇼핑의 성장, 오프라인 업체의 온라인 확장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온라인 성장의 주가 되는 모바일 쇼핑은 경쟁 강도가 너무 높아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듯

인터넷 쇼핑, 편의점 판매액 증감율



- 자료 : 통계청

매체별 인터넷 쇼핑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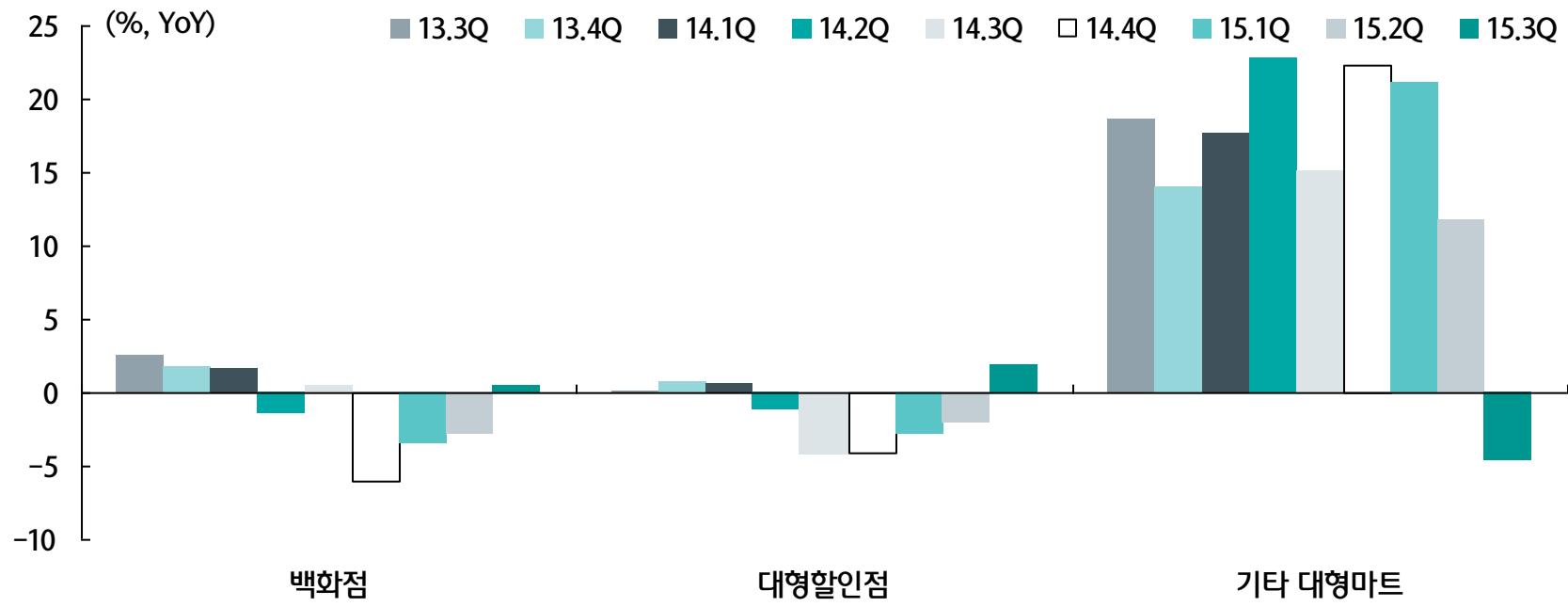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 소매유통 : 대형 소매업은 기저효과에 따른 소폭의 회복 예상

- 저가채널로의 소비자 이탈이 있었던 백화점은 푸드 코트 강화, 신규 출점으로 성장세 회복 중  
- 하지만, SPA, 아울렛, 인터넷의 저가 채널로의 소비자 이탈 지속은 성장의 제약 요인
- 대형마트는 영업규제의 감소 효과가 사라지고 있으나 정체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면세점은 중국인 유입 회복, 아울렛은 합리적 소비, 몰링 소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다만, 메르스 사태('15.2~3Q) 때와 같이 외국인 유입은 변동성이 높아 모니터링 지속 필요

##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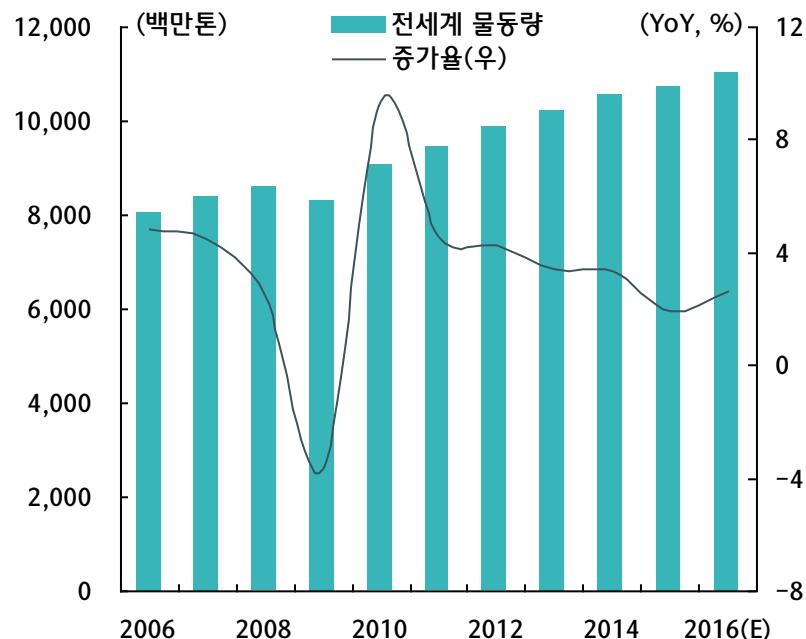
- 주 : 대형할인점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일반적인 대형마트를, 기타 대형마트는 아울렛, 면세점 등을 뜻함

- 자료 : 각 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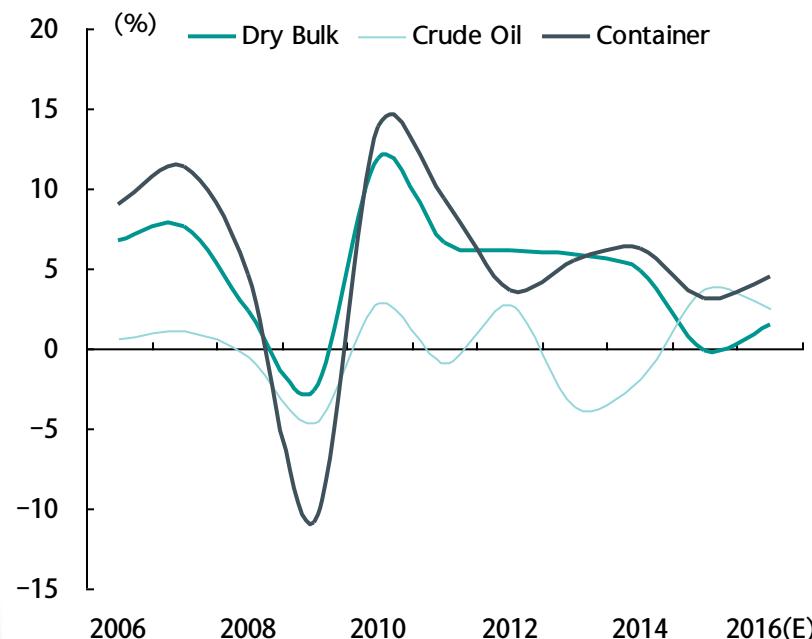
# 해운: 중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낮은 물동량 증가율 지속

-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둔화로 인해 전세계 물동량 증가율은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전망
  - '16년 전세계 물동량 증가율은 '15년 증가율 1.9% 대비 소폭 상승한 2.7%로 예상됨
- 벌크와 컨테이너의 '16년 물동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겠지만, 원유는 증가폭 감소 예상
  - '16년 예상 Cargo별 물동량 증가율 : Dry Bulk 1.6%, Crude Oil 2.5%, Container 4.5%

## 전체 물동량



## Cargo별 물동량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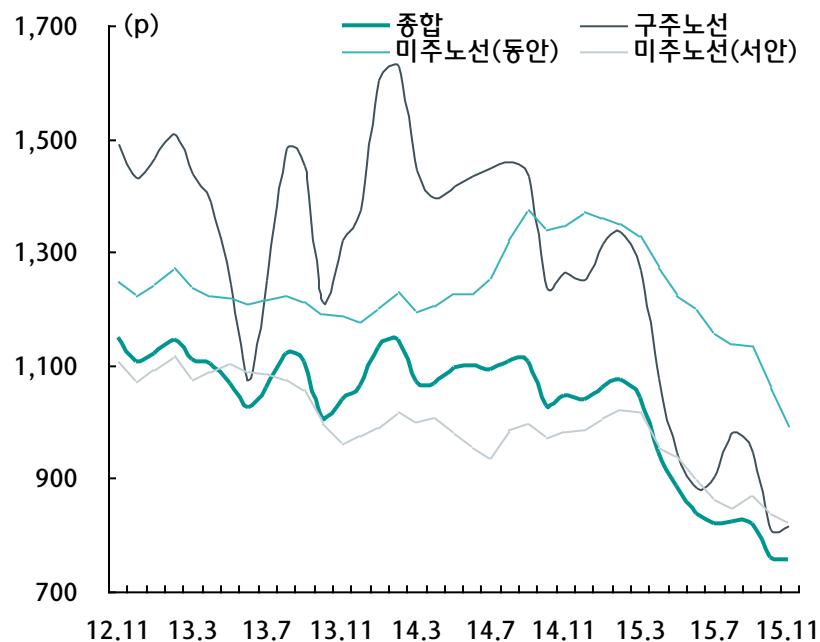
- 자료 : Clarkson

- 자료 :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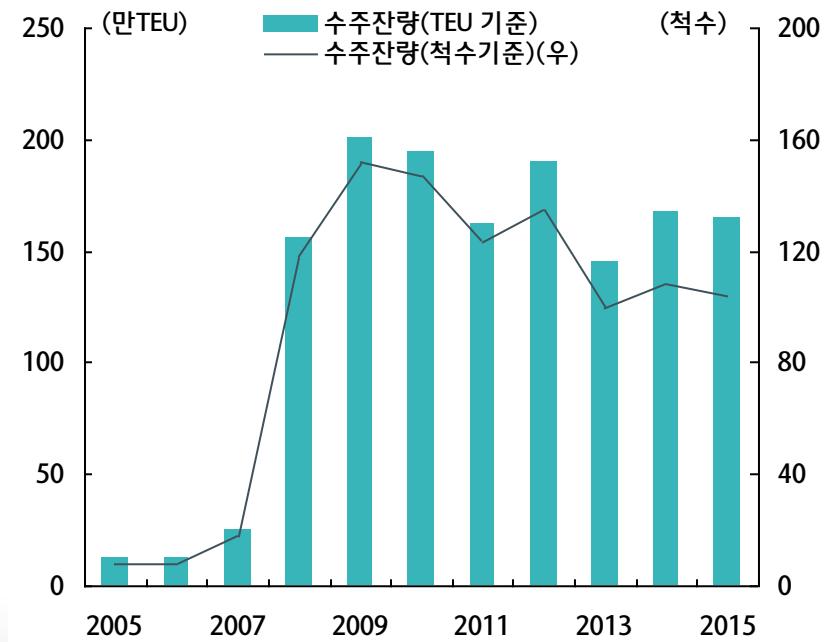
# 해운(정기선):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운임 회복 제한적

-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지속적인 인도와 중국 경제 성장둔화로 의미 있는 수준의 운임 회복 어려움
  - '15년 11월 기준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CCFI)는 758p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중
-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잔량이 과거 대비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선박 공급 과잉 장기화 우려
  - '15년 11월 기준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주잔량은 현재 선복량 대비 약 67%에 달함

##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CCFI)



##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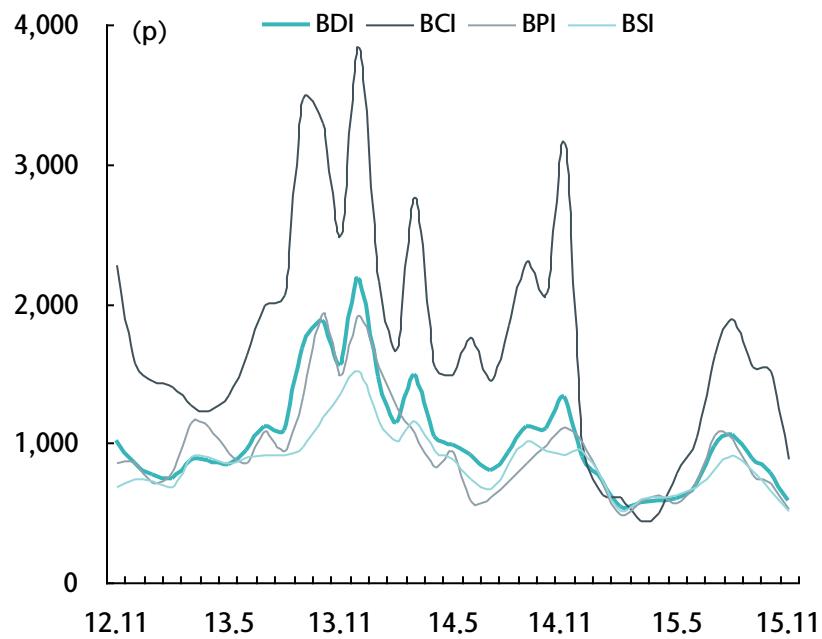
- 자료 : Shanghai Shipping Exchange

- 주 : 초대형컨테이너는 12,000TEU 이상 - 자료 : Clarkson

# 해운(부정기선): 벌크 부진 지속, 탱커 운임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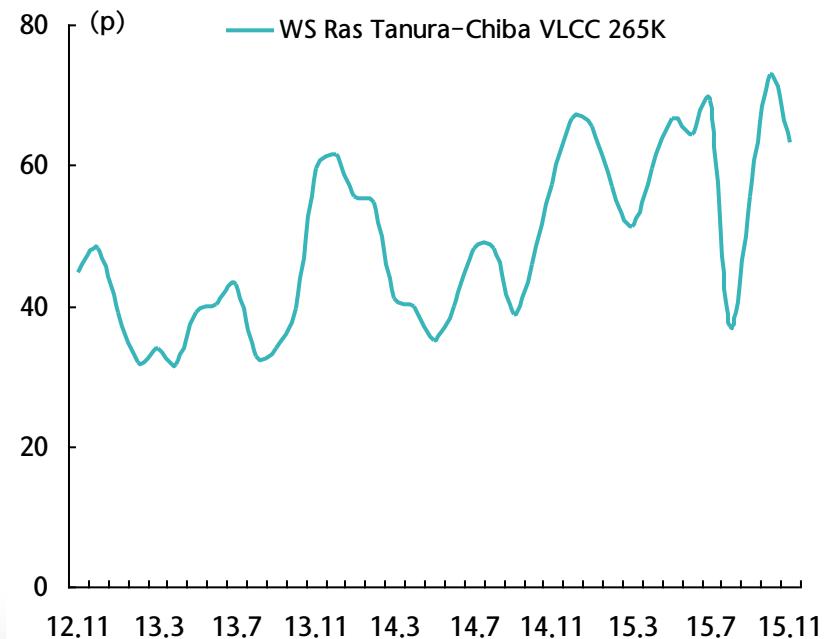
- 벌크 : 선복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부진까지 겹쳐 시황 침체 지속 전망
  - '16년 철광석과 석탄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각각 1.0%,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탱커 : '15년은 저유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고운임이 지속되었지만, '16년은 운임 약세 전망
  - 초대형유조선(VLCC)의 선복량 증가율이 '15년 3.1%에서 '16년 6.8%로 크게 증가

## 벌크선 운임 지수



- 자료 : Clarkson

## 탱커선 운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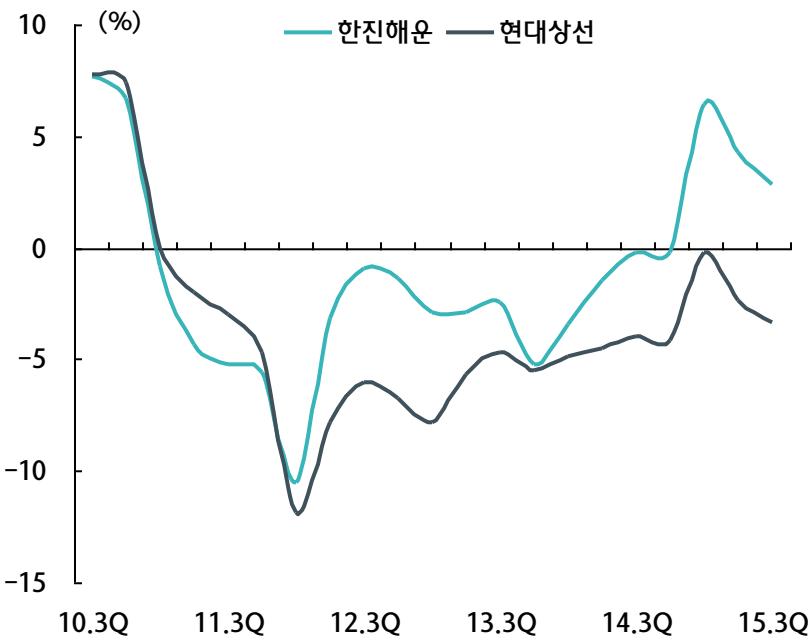


- 자료 :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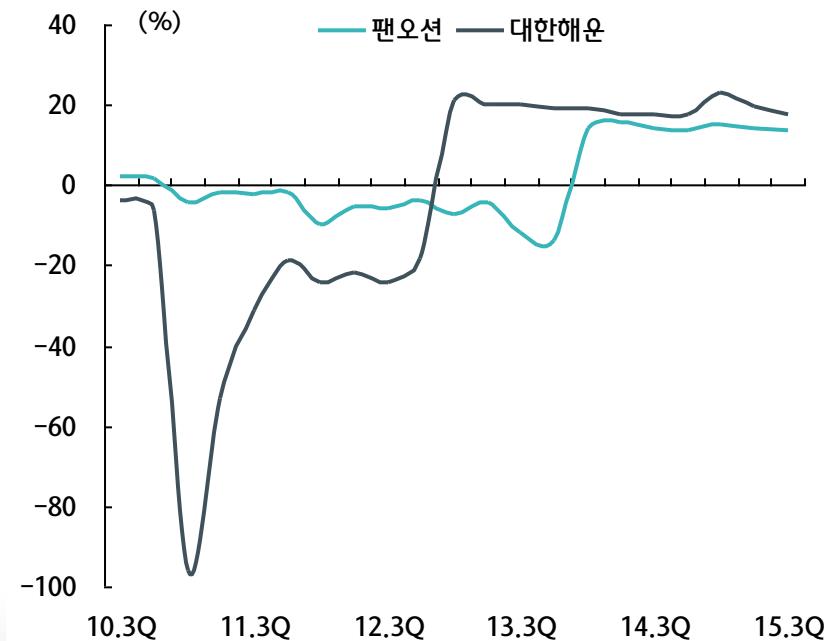
# 해운: 국내 주요 선사 간의 차별화된 실적 흐름 지속

- 정기선사 :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운임 수준으로 인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며, 시황 약세의 장기화로 인해 '16년에는 컨테이너선사 간의 M&A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부정기선사 : 양대 부정기선사인 팬오션과 대한해운은 법정관리 졸업 후 매출에서 장기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16년에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 정기선사 영업이익률



## 부정기선사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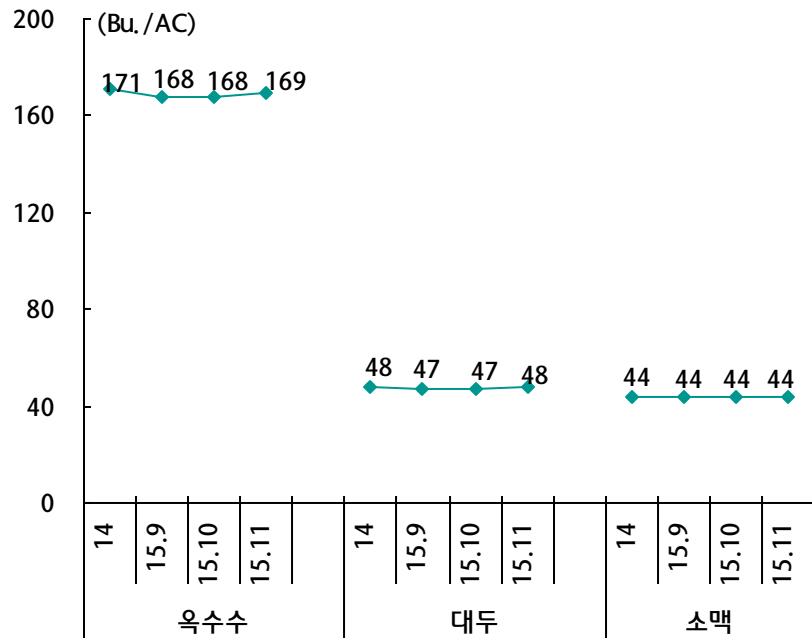
- 주 : 한진해운 및 현대상선 합계

- 자료 : Kis-Value

# 음식료: 2016년 국제 곡물가격, 하향 안정화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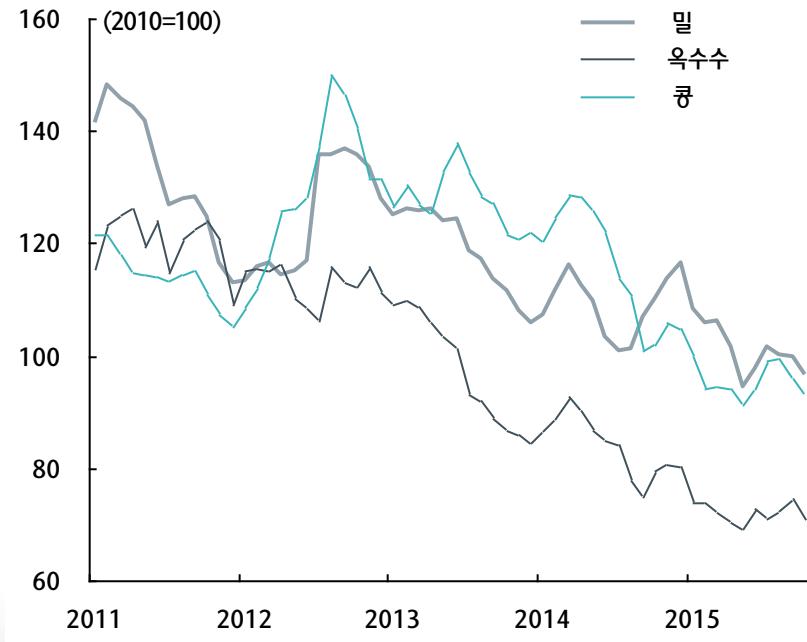
- 2016년 국제 곡물가격은 양호한 작황, 풍부한 재고,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약세 예상
  - USDA의 2015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2015/16년 주요 곡물의 생산 효율성 예상치 상향 조정
- 이에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하여 사용하는 국내 음식료 업체의 수입 곡물 가격 또한 안정화될 전망
  - 음식료 업체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소맥, 대두 등의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글로벌 주요 곡물의 생산 효율성 전망



- 자료 : USDA

국내 곡물 수입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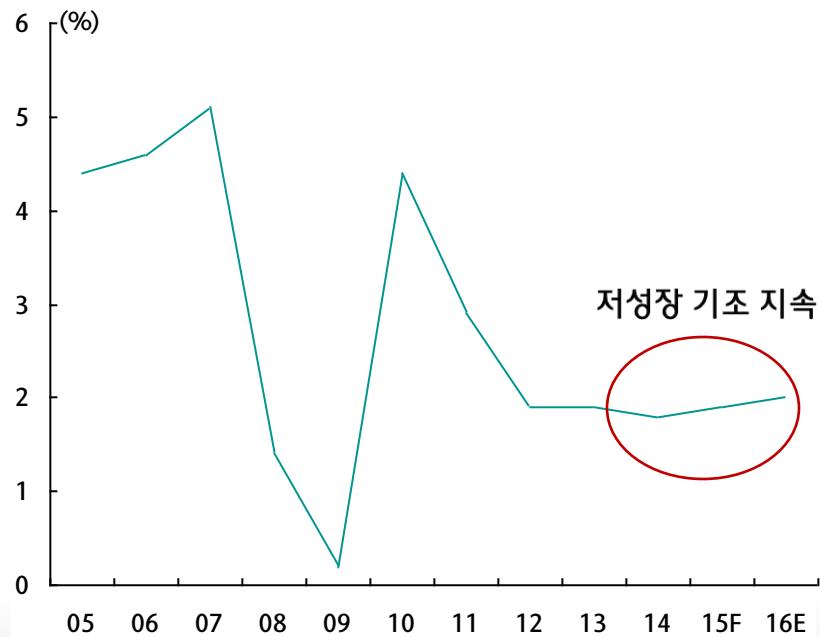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 음식료: 소비심리 회복이 저조하여 제품가격 상승도 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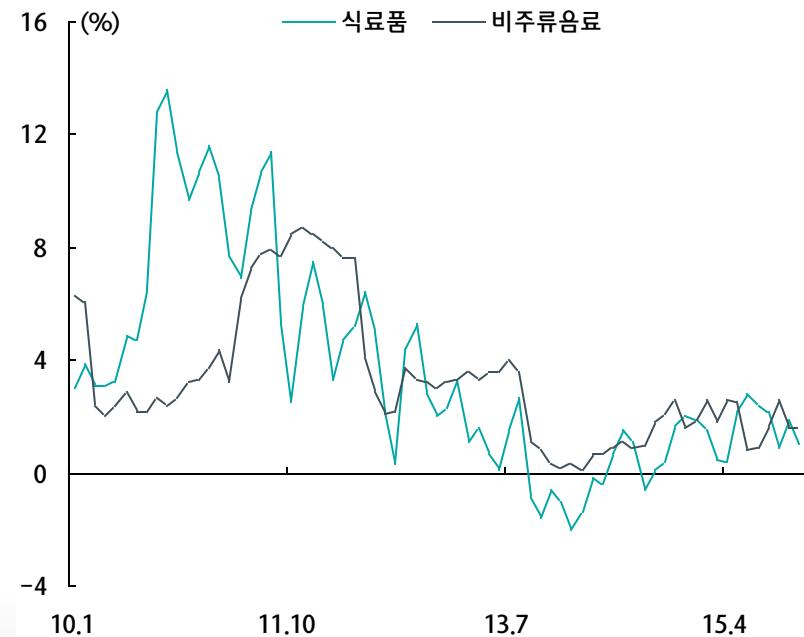
- 2016년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저축 선호 및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리스크로 회복이 제한될 전망
  - 2016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YoY) : 2.0%(1Q) -> 2.7%(2Q) -> 1.9%(3Q) -> 1.5%(4Q)
- 이와 함께 제품의 가격 상승 추세도 미진하여 국내 음식료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인구 성장 둔화로 양적 측면에서 성숙기 시장에 진입한 음식료 산업의 경우 가격 요인이 중요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 주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음식료 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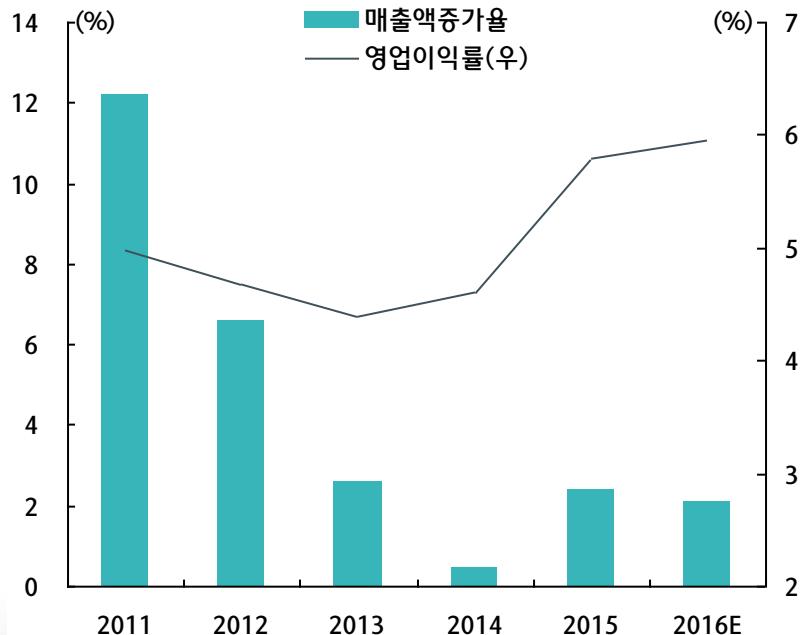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 음식료: 업체의 수익률은 소폭 상승하나 매출 성장은 미미

- 식료품 제조업의 수익률은 글로벌 곡물가격 약세 및 프리미엄 제품 라인 확대로 소폭 상승을 기대  
- 다만, 국내외 소비심리 부진이 지속되어 업계의 외형 성장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
- 음료 제조업 역시 원당가격 약세 속에 수익률은 다소 회복되나, 외형 성장이 제한되며 경쟁이 격화  
- 최근 음료시장 내 제약 및 유업계 등 신규 참여자가 대거 등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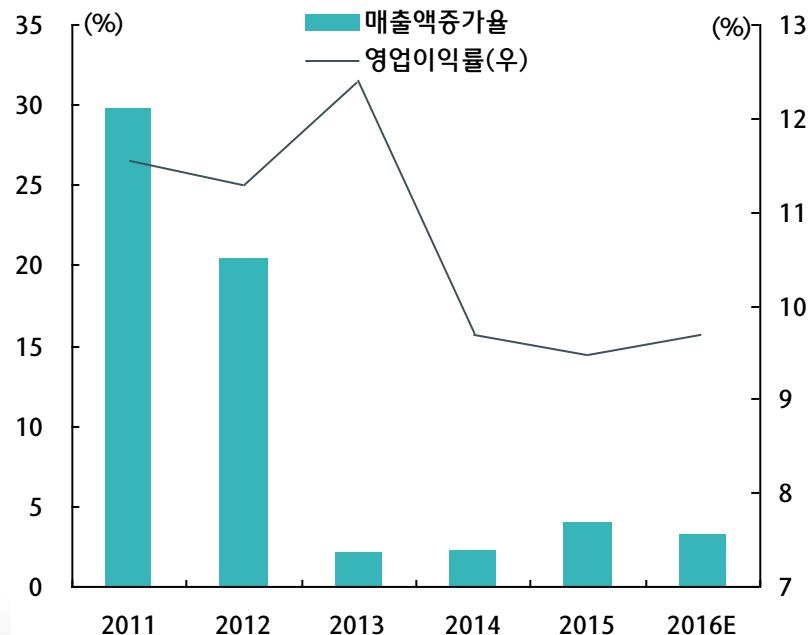
## 식료품 제조업체 실적 전망



- 주 : 식료품 제조업 441개사 합산 기준

-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음료 제조업체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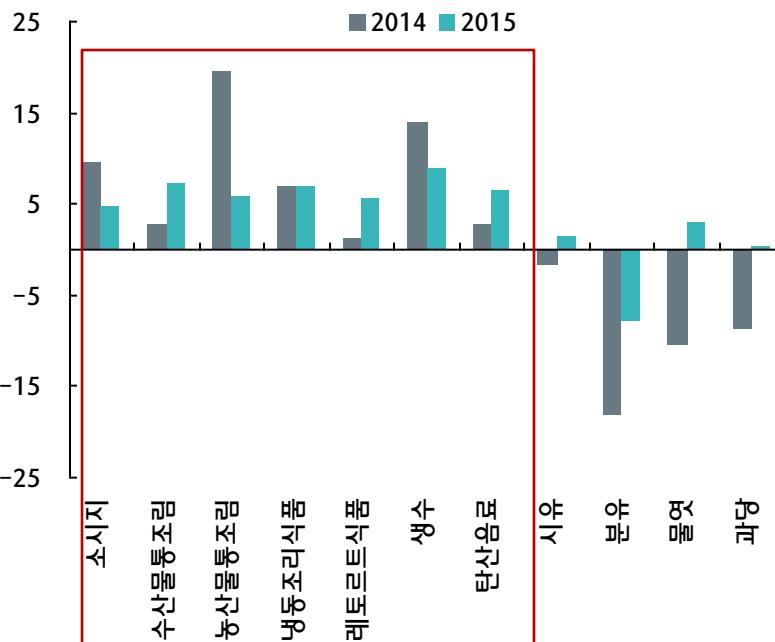
- 주 : 음료 제조업 64개사 합산 기준

- 자료 : Kis-Valu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음식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성장

-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간편조리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시장이 크게 확대
  - 2014~2015년 출하량이 증가한 주요 식품군은 통조림, 냉동조리식품, 레토르트 식품, 생수 등
- 한편 경기의 장기 부진과 함께 소득 양극화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프리미엄 라인의 성장도 기대
  - 인구 고령화, 웰빙 트렌드 확산 등으로 고가의 원재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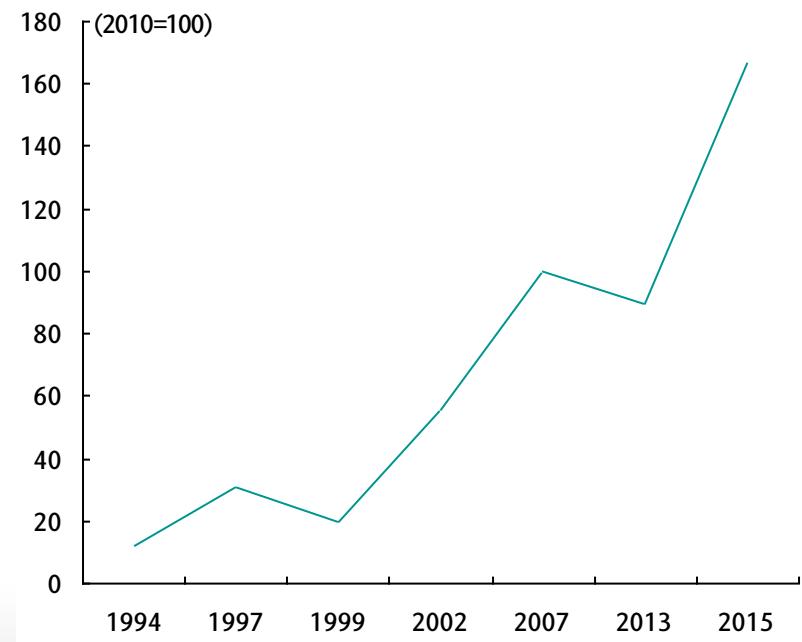
국내 주요 식료품의 출하 증가율



- 주 : 2015년은 10월 누계 기준

- 자료 : 통계청

국내 소득양극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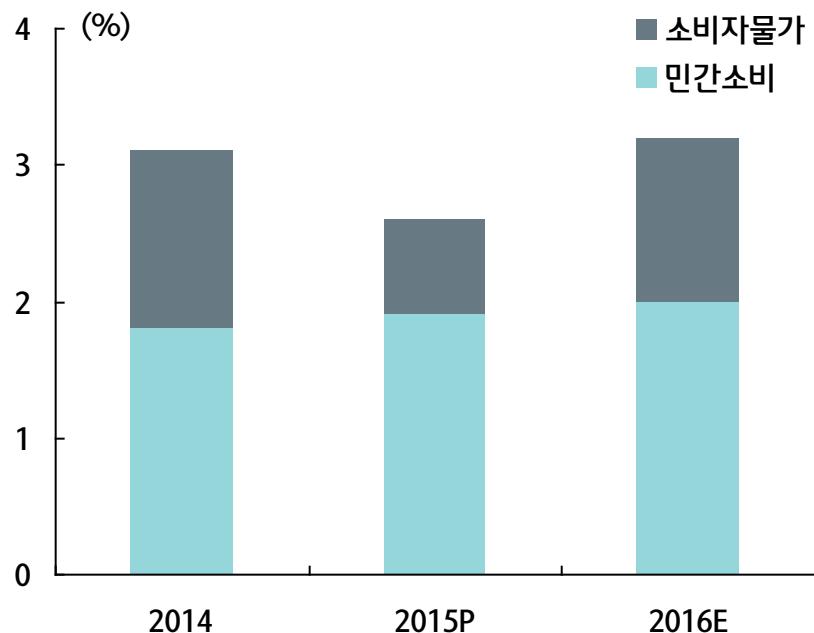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의류 : 민간소비의 정체 속에 의류 소비 회복 가능성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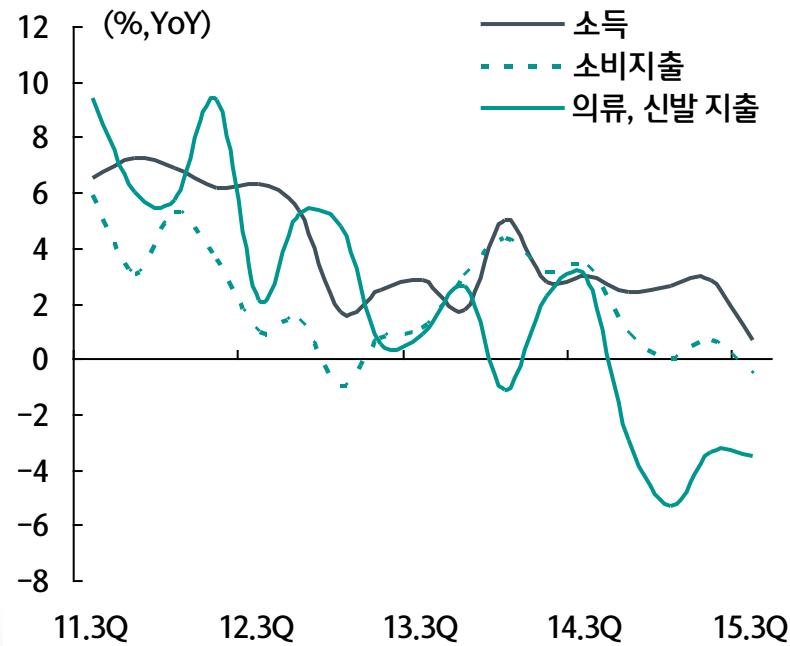
- 2016년, 노후 대비와 가계 부채 조정에 따라 민간소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도 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 부재로 제한적 회복에 머무를 전망
- 특히, 가계 의류 신발 관련 지출은 가계소득, 소비와는 큰 격차를 보이며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성장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15년 3분기 가계 소득, 소비, 의류 신발 지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7%, -0.5%, -3.5%

민간소비, 소비자물가 전망



- 주 : 2015, 2016년 자료는 각각 연구  
소 추정치, 전망치  
- 자료 : 한국은행, Hanaif

가계 소득, 소비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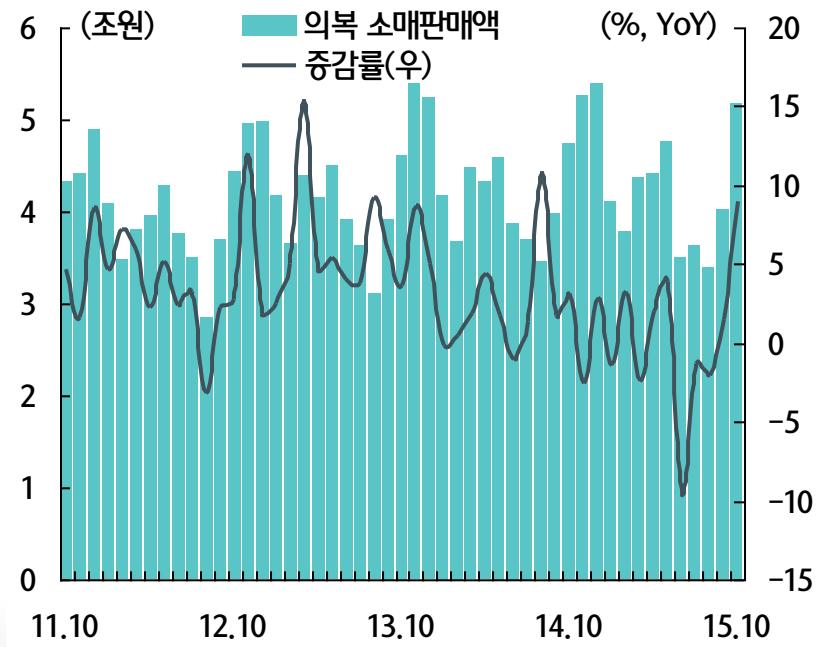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 의류 : 최근 회복세를 감안하더라도 소폭 회복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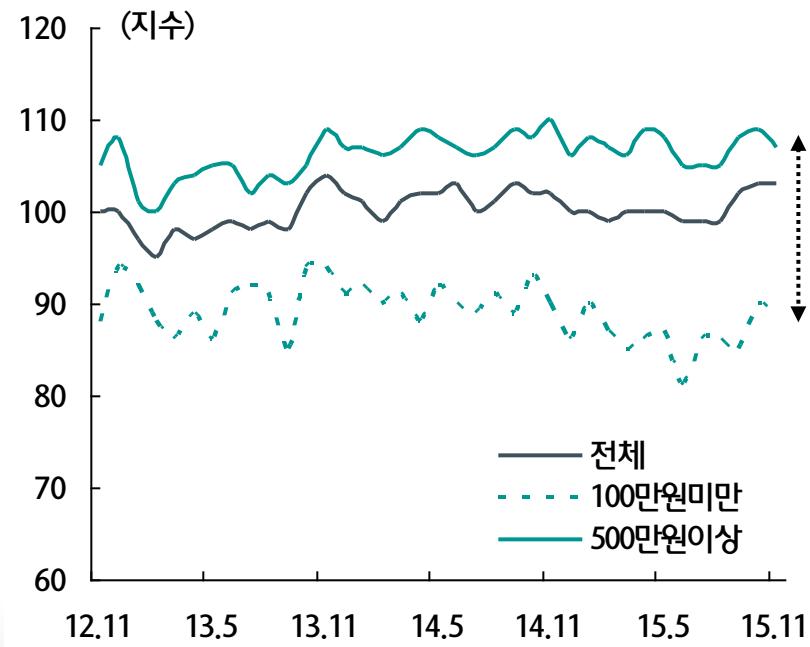
- 다만, 의류 치출 소비자 심리가 소폭 회복하고 있으며 의복 소매판매액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어, 이연소비 실현과 기저효과를 감안하여 2016년, 1~2%의 소폭 회복을 전망
- 소득별 의류 소비 심리의 격차 심화, SPA 등 저가 제품의 성장에 따른 소비 양극화로 중저가 브랜드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성장하던 아웃도어 시장도 시장포화와 경쟁 심화로 부진 예상
- OEM분야는 TPP 시행의 수혜(베트남 생산 시설), 아웃도어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영향 차별화 예상

의복 소매판매액 추이



- 자료 : 통계청

소득별 의류 치출 C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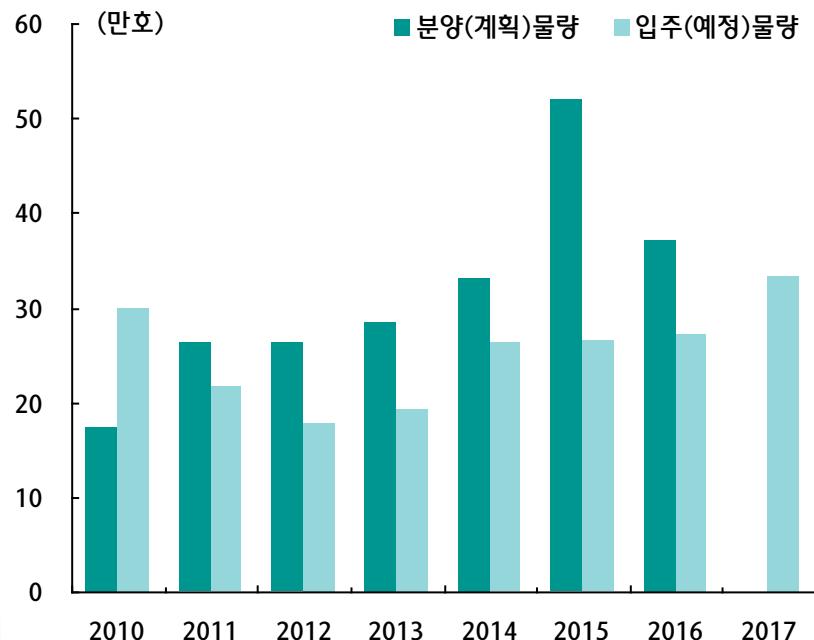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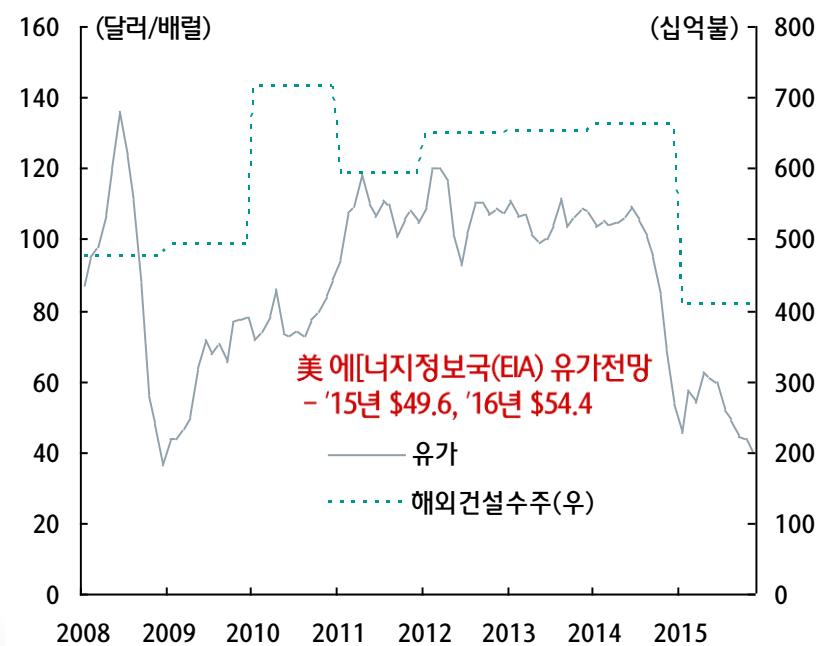
# 건설: 국내와 해외 건설시장의 차별화 흐름 지속

- 국내 주택시장은 물량과 가격 양 측면에서 호황
  - '15년 주택거래량(120만호), 주택인허가(70만호), 아파트분양물량(52만호) 금융위기 이후 최대
  - '15년 주택가격상승률 전국 +4.2%, 수도권 +4.2%로 2011년 이후 최고치
- 해외 건설시장은 저유가에 따른 발주 감소로 불황
  - 유가하락으로 해외 건설 발주물량 축소, AIIB 출범 등 아시아 인프라 시장 확대는 2017년 이후

아파트 분양 및 입주물량



유가와 해외건설수주액



- 주: 2016년 분양물량은 업계 추정치

- 자료: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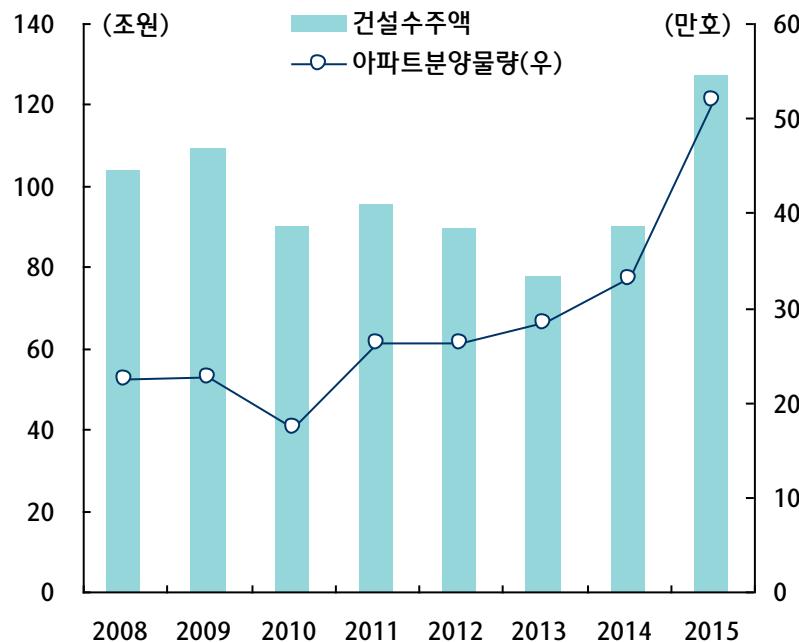
-- 주: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 자료: 연합인포맥스,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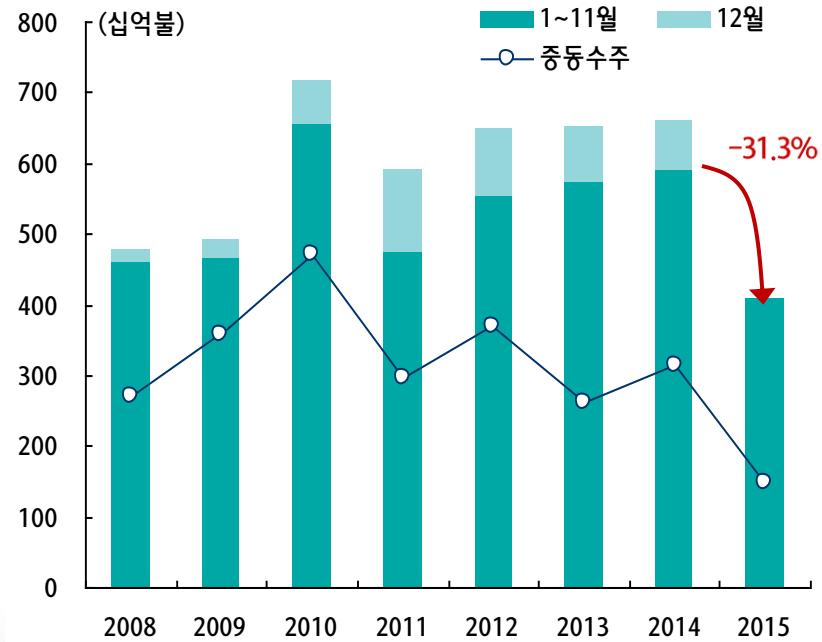
# 건설: 국내는 주택 중심 회복세이나 해외 건설수주는 급감

- 주택시장 호조에 힘입어 국내 건설수주 급증
  - '15년 주택분양 및 거래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며 민간 건축수주 급증(3Q 누적 YoY +149.8%)
  - 정부 SOC예산 증가(+4.6%)로 '15년 공공 토목수주가 늘었으나 '16년에는 SOC 예산 6% 감소
- 유가하락에 따른 중동 플랜트 발주 감소로 해외 건설수주액 급감
  - 1~11월 해외건설수주액 전년대비 31.3% 감소, 중동수주액은 52%나 감소

건설수주와 아파트분양물량



해외건설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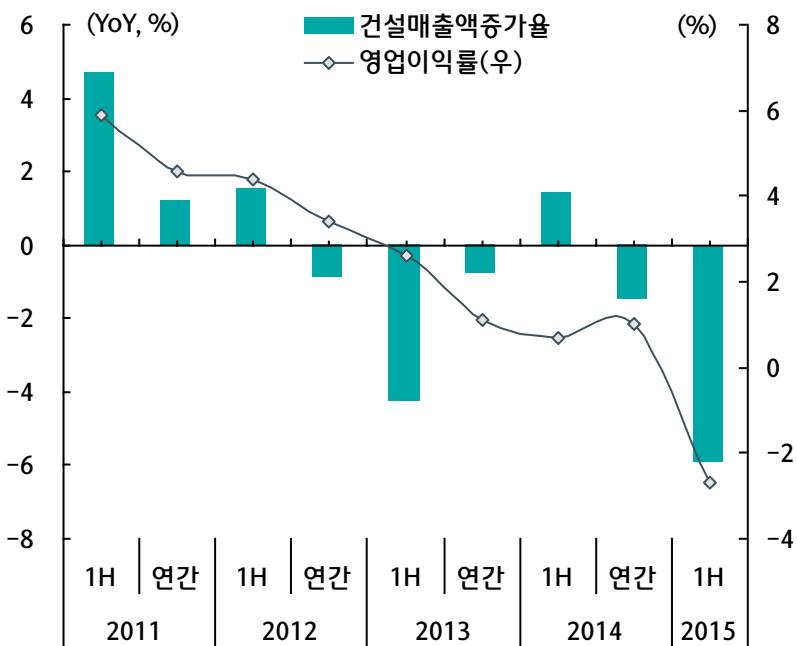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국토교통부

- 자료 :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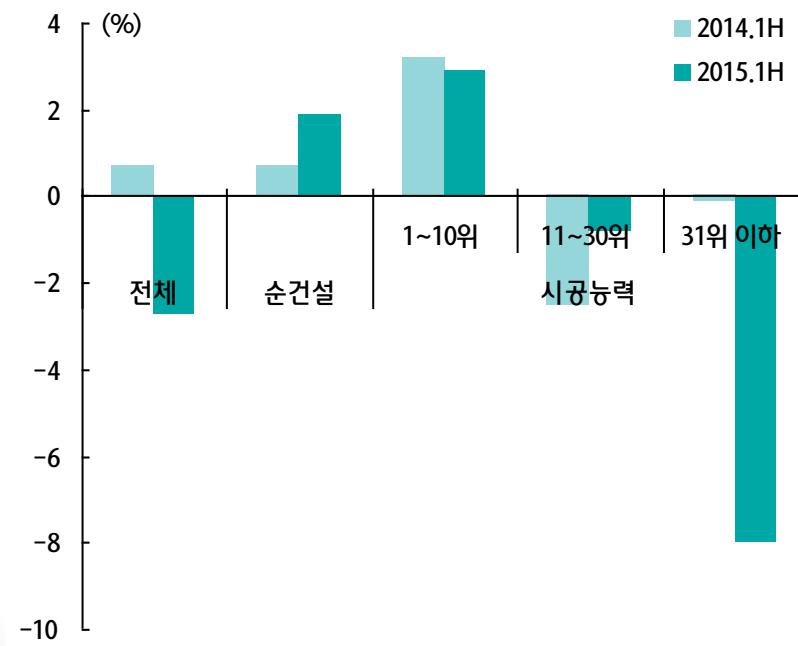
# 건설: 건설업계 실적 양극화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건설업체 실적 악화추세 지속되고 있으나 건설전문업체의 이익률은 비교적 양호
  - 조선업 겸업 건설사의 실적악화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모두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
  - 건설전문업체(건설 매출 비중 80% 이상)의 '15년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9%로 비교적 양호
- 규모, 공종, 국내/해외 비중 등에 따른 건설업계 양극화 지속 전망
  - 대형 건설사, 국내 건설전문업체 등의 실적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

종합건설사 경영실적



시공능력순위별 영업이익률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자료 : 대한건설협회